

華嚴書院 山仰會報



우동사(祐東祠) : 하서 김인후선생의 춘·주제를 올리는 우동사

삼양그룹은 식품만이 아닙니다
화학부터 의약까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모든 것에 삼양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첨단화학소재부터 69억 세계인이 꿈꾸는 항암제까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첨단소재를 발견하신다면 확인해보십시오. 아마 삼양그룹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풍요로운 생활의 시작 **samyang**

경범(景范)에게 편지하고서 아울러 박화숙에게 부치다.

簡景范兼寄朴和叔 淳, 號思庵

河西 金 仁 후

선장과는 일찍이 친한 터지만	先子曾傾蓋
그대 또한 무리에 뛰어나구려.	吾君亦絕倫
서로 형식 잊어버린 술상머리에	相忘盃酒裡
취해 읊은 사람이 가스로웠소.	可笑醉吟人

기이(其二)

정자(正字)는 요즈음에 어떠한지 원	正字今何許
시를 가져 벗님에게 부치고 지고.	將詩付故人
강남이라 매화가 피려 드는데	江南梅欲發
홀로 술을 대하니 신(神)이 상하네.	對酒獨傷神

기삼(其三)

화숙과 헤어진 적 하마 오래라	和叔分携久
고명이 아마 날로 새로울 데지.	高明想日新
보낼 데가 꼭 있어 시를 짓자니	裁詩聊有寄
음빈(吟鬢)은 치운 봄이 두렵네 그려.	吟鬢怕寒春

「傾蓋」: 한번 만나 바로 친해졌다는 뜻임. 《孔叢子》에 「孔子가 程本과 서로 길에서 만나 일산을 기울이고 이야기했다」라 하였음.
경범(景范): 조희문(趙希文)의 자, 선생의 큰사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생애와 사상

李成茂 박사 (한국학술원 부원장, 前 국사편찬위원장)

1. 생애

김인후(1510-1560)의 자는 후지(厚之)요, 호는 하서(河西)·담재(湛齋)요, 본관은 울산(蔚山)이다. 그는 1510년(중종 5)에 장성현(長城縣) 대맥동리(大麥洞里)에서 탄생했다.

하서는 어릴 때부터 신동(神童)으로 알려져 있었다. 6세에

높고 낮은 것은 지세(地勢)를 따랐고,
(高低隨地勢)
이르고 늦은 것은 천시(天時)로부터일세.
(早晚自天時)
사람의 말을 어찌 족히 근심할까,
(人言何足恤)
밝은 달은 본래 사사로움이 없네.
(明月本無私)

라는 시를 지었는데, 후세에 간재(艮齋) 전우(田愚)는 이 시를 평해 “이 시는 성문인체(聖門仁體)의 묘를 표현한 것이니, 실로 생이지지(生而知之)의 자품(資品)이요, 백세의 스승”이라고 극찬했다.¹⁾ 8세에 전라감사 조원기(趙元紀)는 하서를 불러 시를 지어보게 하고 감탄해 “장성 신동이요, 천하문장”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9살에 기준(奇遵)이 남행길에 하서를 보고 “참으로 기이한 아이다. 장차 세자신(世子臣)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안국(金安國)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하서의 학식을 시험해 보고 “내 소우(小友)다” “정말로 3대 인물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하서는 이때부터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문하에서 공부했다.²⁾

하서는 22세 되던 1531년(중종 16)에 진사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했다.³⁾ 여기서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만나 서로 뜻이 맞아 친구를 맺었다. 『퇴계언행록』에도 “퇴계가 더불어 사

1) 河西年譜(『河西先生全集』附錄卷3).

2) 金相五, 河西 金麟厚의 생애와 文廟從享의 經緯(『전북사학』 제5집, 59쪽).

3) 하서의 進士同年은 成運 · 徐敬德 · 白仁傑 · 鄭惟吉 등이다.

권 사람은 오직 하서 1인뿐이다”라고 했다. 하서는 31세 되던 1540년(중종 35)에 문과 별시에 급제해⁴⁾ 승문원 부정자가 되고 그 다음 해에 퇴계와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의 명을 받았다. 그 후 하서는 1541년(중종 36)에 홍문관 정자 겸 경연춘추관 기사관·저작, 다음 해에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를 역임했다. 중종은 하서에게 세자(뒤에 인종)의 교육을 전담케하고, 세자 또한 하서의 학문과 인격에 감탄했다. 그리하여 세자가 하서에게 묵죽(墨竹) 하나를 쳐 주기도 하고, 『주자대전』 1절을 하사하기도 했다.

1543년(중종 38)에 하서는 다시 홍문관 부수찬 겸 경연검토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동궁(東宮)에 화재가 난 것을 기화로 경연에서 기묘사화에 희생된 사람들을 신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토관 김인후가 말하기를 “근래 무상(無狀)한 소인으로 죽어도 죄가 남을 자들이 다 복직되었는데도, 한때 행한 일이 비록 다 옳지는 않으나 그 본심은 터럭만큼도 나라를 속이려 는 마음이 없으면서 마침내 무거운 죄를 졌습니다. 그 후 죄를 지은 사람은 비록 대역부도해서 죽여도 죄가 남을 사람도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혹 복직된 자가 있는데, 기묘사림은 오히려 임금의 은혜를 입지 못해 신이 홀로 미편하게 생각합니다”⁵⁾ 라고 했다. 이는 심정(沈貞) 이항(李沆) 등의 소인배들은 다 복직이 되었는데, 조광조(趙光祖) 김식(金湜) 등 기묘사림들은 풀려나

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이 상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았으나 기묘사림이 풀려나오게 될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하서는 1544년(중종 38) 8월에 홀연히 옥당의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대운과 소운의 싸움 때문이었다. 문정왕후와 윤원형(尹元衡)의 발호로 사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서는 아버지 참봉공을 봉양하기 위해 옥과(玉果) 헌감으로 굴군(乞郡)해 나갔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했다. 그리하여 명의 조문사(弔問使)가 와서 하서는 제술관(製述官)에 임명되었다. 하서는 약을 의논하는 데 함께 참여하기를 자청하고 왕을 다른 궁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으나 조정에서 거절당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⁶⁾

그래서 하서는 귀향했다. 이 해 7월에 인종이 승하하니 하서는 실성통곡(失聲痛哭)해 기절할 뻔 했고, 그 때문에 병이 생겨 옥과 헌감을 그만두고 본택으로 돌아와 두문불출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6세였다. 그는 술과 시로 비통한 심정을 달랬다. 인종의 기일(忌日)인 7월 1일마다 하서는 산 속에 들어가 하루 종일 통곡했다 한다. 제자인 송강(松江) 정철(鄭澈)은

동방에 출처(出處)가 없는데, (東方無出處)
홀로 담재옹(湛齋翁)만 있네. (獨有湛齋翁)
해마다 7월 1일이 되면 (年年七月日)
산 속에서 통곡하네. (痛哭萬山中)

4) 國朝榜目에 의하면 이때 文科 別試 同年은 갑과 1인(尹希聖), 을과 2인(金若默·金翼)과 16인(金廷準·崔世準·金麟厚·金履祥·

南宮忱·魯廷齡·楊洪·鄭浚·姜昱·尹玉·林蒼·李文獻·高孟英·柳昌門·金希參·裴淑綺) 등이다.

5) 『중종실록』 권 101, 중종 38년 7월 을축.

6) 李肖翊의 『燃藜室記述』에는 “請參議藥之說恐非是”라고 했다.(卷仁9宗朝故事本末)

이라고 읊었다.⁷⁾ 1545년(명종 즉위년) 7월에 인종이 죽고 명종이 섰다. 그리고 을사사화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었다. 새 조정에서는 하서에게 공조 정랑·성균관 전적 등의 관직을 제수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553년(명종 8)에는 홍문관 교리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을 제수했으나 신병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다. 다음 해에는 성균관 직장으로 불렸으나 올라오지 않아 명종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해 식물(食物)을 제공하라고까지 했으나 사양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향에 은거해 도학 연구에 전력을 쏟았다. 그는 이웃 군인 순창군 점암촌(鮎岩村)에 초당(草堂)과 훈몽재(訓蒙齋)를 짓고 후진을 양성했다.

그러나 하서는 점차 심기가 약해져 1560년(명종 15) 1월 16일에 서거하니 향년 51세다. 그는 임종 시에 옥과현감 이후의 관작은 쓰지 말라고 유언했다. 부인은 여흥(驪興) 윤씨로 2남 4녀를 두었다. 하서 집안은 호남의 명문거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의 장자부(長子婦)는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딸이요, 손부(孫婦)는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의 딸이요, 사위 중의 하나가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의 아들이다.

하서가 죽은 뒤 행장은 박세채(朴世采)가, 가장(家狀)은 문인이며 사위인 양자징(梁子徵)이, 묘표는 김수항(金壽恒)이, 묘지는 김중후(金鍾厚)가, 신도비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각각 지었다. 하서는 옥과의 영귀사(永歸祠), 순창의 화산사(華山祠), 장성의 기산서원(岐山書

院: 정유재란에 불타 甌山 밑에 復設), 장성의 필암서원(筆岩書院-뒤에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로 옮김)에 배향되었다. 또한 하서는 1668년(현종 9)에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 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오위도총부도총관세자좌빈객에 추증하고 다음 해에 문정(文靖)이란 시호를 받았다. 그리고 1796년(정조 20)에 하서는 문묘에 종사되었다.⁸⁾ 그리고 증예조판서 김인후를 대광보국송록대부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에 추증하고, 불천위(不遷位)로 삼아 제사하게 했다. 문정(文靖)이란 시호도 문정(文正: 道德博文日文 以正服人曰正)으로 고쳤다.⁹⁾

2. 문묘 종사 경위

고려·조선 전기에 문묘에 종사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려 현종 때 신라 말의 명유 최치원(崔致遠)과 설총(薛聰)이 문묘에 종사되었고, 충숙왕 때 안향(安珦)이 종사되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1517년(중종 12년)에 정몽주가, 1610년(광해군 2)에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등 5현이 종사되었다. 그 후 조선 후기에는 숙종 때 이이(李珥)와 성혼(成渾)·김장생(金長生)을, 영조 때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박세채(朴世采)를, 1796년(정조 20)에 김인후(金麟厚)를 각각 문묘에 종사했다.

김인후의 문묘종사 경위는 다음과 같다.

7) 『河西先生集』附錄 卷2, 詩 『松江遺稿』 卷上

8) 『정조실록』 권45, 정조20년9월 기미.

9) 金相五, 앞의논문 69쪽.

김인후의 문묘 종사 논의는 1771년(영조 47)에 전라도 유생 양학연(梁學淵) 등의 상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786년(정조 10) 8월에 8도 유생 박영원(朴盈源) 등이¹⁰⁾, 그해 10월에 8도 유생 정현(鄭璉) 등이¹¹⁾, 1789년(정조 13)에 8도 유생 심익현(沈翼賢)¹²⁾ 등이, 1789년(정조 13) 7월에 8도 유생 신광예(申光禮)¹³⁾ 등이, 1790년(정조 14) 3월에 8도 유생 이악겸(李岳謙)¹⁴⁾ 등이 계속 김인후의 문묘 종사를 주장했으나 종향(從享)의 전례(典禮)가 막중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정조는 “문정공의 도학(道學)·문장(文章)·출처(出處)의 대절에 대해서 존송하고 추모하는 것이 어찌 너희들만 못하겠는가? 그러나 성묘(聖廟)에 올려 배향(配享)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전례인가? 이에 앞서 여러 선비들을 문묘에 종사할 적에도 또한 상소를 올린 즉시 윤택한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방전(邦典)이 그러한 것이다. 이것은 사문(斯文)을 높이고 성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정중하게 여기면서 선뜻 허락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이러한 뜻에서이다”¹⁵⁾ 라고 했다. 그 후에도 1790년(정조 14) 3월에 충청도·전라도 유생 윤재후(尹載厚)¹⁶⁾ 등이, 1796년(정조 20) 6월에 8도 유생 이명채(李明采)¹⁷⁾ 등이, 1796년(정조 20) 6월 22일에 유학 김무순(金懋淳) 등이¹⁸⁾,

1796년(정조 20) 7월 12일에 8도 유생 채홍신(蔡弘臣) 등이¹⁹⁾, 1796년(정조 20) 8월 2일에 서울과 지방 유생 정대현(鄭大鉉) 등이²⁰⁾, 1796년(정조 20) 8월 8일에 서울과 지방의 유생 이규남(李奎南) 등이²¹⁾, 1796년(정조 20) 9월 6일에 관학 유생 심내영(沈來永) 등이²²⁾, 1796년(정조 20) 9월 10일에 관학 유생 이광현(李光憲) 등이²³⁾, 1796년(정조 20) 9월 17일에 관학 유생 홍준원(洪準源) 등이 김인후의 문묘 종사를 계속 요구했다. 이에 9월 17일에 정조는 “선정(先正) 문정공(文靖公)은 바로 우리 동방의 주자(周子)다. 이정(二程)·장재(張載)·주자(朱子)를 먼저 공자 사당에 종사하면서 주자(周子)만 홀로 종사하는 반열에서 빠뜨린다면 이정·장재·주자(朱子)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오늘 너희들이 청하는 것은 바로 문정공(文正公) 조광조, 문순공(文純公) 이황, 문성공(文成公) 이이, 문정공(文正公) 송시열의 마음이다. 윤택을 오늘까지 짐짓 미루어 온 것은 그 예를 중하게 다루고 그 일에 신중을 기하자는 데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미 상소가 세 번이나 올라온 이상 무엇을 더 주저하겠는가? 선정 문정공 김인후를 문선왕의 사당에 배향하자는 너희들의 청을 시행하도록 윤택하는 바이니, 예조의 관원으로 하여금 전례(典禮)를 조사한 후 날을 정해 거행하게

10) 『정조실록』 권 22, 정조 10년 8월 기사.

11) 『정조실록』 권 22, 정조 10년 10월 을묘.

12) 『정조실록』 권 27, 정조 13년 4월 무자.

13) 『정조실록』 권 27, 정조 13년 7월 신묘.

14) 『정조실록』 권 29, 정조 14년 3월 임인.

15) 동상.

16) 『정조실록』 권 29, 정조 14년 3월 정미.

17) 『정조실록』 권 44, 정조 20년 6월 병신.

18) 『정조실록』 권 44, 정조 20년 6월 기해.

19) 『정조실록』 권 45, 정조 20년 7월 을묘.

20) 『정조실록』 권 45, 정조 20년 8월 갑술.

21) 『정조실록』 권 45, 정조 20년 8월 경진.

22) 『정조실록』 권 45, 정조 20년 9월 무신.

23) 『정조실록』 권 45, 정조 20년 9월 임자.

하라!”²⁴⁾ 고 해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윤택했다. 10년에 걸쳐 14번이나 상소가 올라온 나머지 김인후의 문묘 종사가 윤택된 것이다. 문묘 종사와 더불어 김인후는 영의정에 증직되고 불천위가 되었다. 11월 8일에 정조는 문정공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면서 교서를 반포했다.

“(상략 上略) 경은 해동의 염계(濂溪)이자 호남의 공자다. 성명(性命)과 음양(陰陽)에 관한 깊은 식견은 아득히 태극도(太極圖)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고,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의 요지는 먼저 『소학』에 힘을 쏟은 것이었다. 시를 지어 뜻을 말하는데 있어서는 천지 사이에서 두 사람(공자·주자)만 추대했고, 이치를 연구하고 근원을 탐색해 일찍이 『역상편』(易象篇)을 저술했는데, 여러 학설들이 탁월했다. 홀로 대의를 보아 추구해 나감에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으니, 도(道)와 기(氣)가 하나로 섞여 있다고 주장한 여러 학자들의 잘못된 논리를 단연코 내쳤고, 이(理)와 기(氣)의 사단 칠정에 관한 변론은 동지들의 의심을 후련하게 풀어주었다. 내면에 쌓인 강건하고 곧고 단정한 성품은 엄동설한의 송백(松柏)이었고, 밖으로 드러난 빛나고 온화하고 순수한 자태는 맑은 물 위의 연꽃이었다. 거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3대(三大)의 인물이라 할 수 있겠는데, 다행히 크게 해보고자 하던 효

릉(孝陵) 시대를 만나 순수한 유신이 내면에 지닌 아름다운 덕을 펼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 동궁이 깊이 신임해 이미 그림에다가 뜻을 담아서 주었고, 숙직하는 관서로 찾아와서 강론하는 이외에 특별히 마음을 털어놓곤 했었다. 보필하는 신하로서 은연 중에 마음이 부합한 것은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얻은 것과도 같았고, 임금과 백성들에 관한 책임을 스스로 맡고 나선 것은 이윤(伊尹)이 성탕(成湯)을 만난 것과도 같았다.(하략)²⁵⁾

정조가 하서를 높이 평가한 것은 도학, 절의, 문장의 3박자가 맞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조는 소두(疏頭) 이규남(李奎南) 등을 인견한 자리에서 “김문정공은 도학이 진정(眞正)하고 독실(篤實)해 내가 본래 존경하고 숭상한 바이다. 만약 행하는 것이 앞서고 아는 것을 뒤로 하는 것이나, 안을 곧게 하고 밖을 반듯하게 하는 공부로 말한다면 실로 우리 동방의 제1인이다”라고 했다.²⁷⁾ 정조는 또한 우의정 윤시동(尹時東)을 불러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내가 김하서에 대해 특별히 존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무릇 도학, 절의, 문장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은 유독 하서 한 사람뿐이다”라고 했다.²⁸⁾

다음 달 인정전(仁政殿)에서 예문 제학 구상(具相)이 지은 교서가 반포되었다.

24) 『정조실록』 권 45, 정조20년9월기미.

25)동상

26) 『정조실록』 권 45, 정조20년 11월 기유.

27) 金文靖道學之眞正篤實 予之素所尊尚 若言其行先後知直內方外之工 則實爲我東第一人(『정조실록』 권 45, 정조20년8월경진)

28) 予於金河西別有起貌焉 夫道學也 節義也 文章也 無一不備者 獨河西一人矣(『정조실록』 권 44, 정조20년6월 무술)

“하늘이 참된 유신(儒臣)을 내려 문명의 운을 크게 열어주었으니, 그 은덕을 크게 보답해야 하겠기에 배향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바이다. 이는 사람들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뜻이 정해졌었다. 생각건대 문묘에 훌륭한 유신을 배향하는 의식은 실로 유학을 위해 도통을 밝히는 요지이니, 성스러운 덕을 지닌 자가 아니고서야 저렇게 높은 공자의 답장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후학의 모범이 여기에 있으므로 바른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종(祖宗)의 큰 터전을 이어받은 이후로 임금과 스승으로서의 큰 책임을 저버릴까 늘 염려해 왔다. 그러나 만세의 세태는 너무도 고루해 추구하는 바가 갈라지는 것을 어찌하지 못했고, 선대 철인들의 경지는 엿보기 어려워 논의가 잘못되기 쉬운 형편이었다. 큰 도로 함께 귀의하는 교화를 기약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게 하는 방도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 왔었다.

옛날의 큰 유학자인 하서는 해동에 우뚝한 정학(正學)이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시로 단풍나무를 노래해 일편단심을 담았고, 성인에 가까운 자질에다 근원을 파고들어 오묘한 이치를 탐구했다. 평생 동안 마음에 맞아 추대한 자는 오직 두 사람(공자와 주자)뿐이었으며, 본원적인 공부는 전적으로 『대학』과 『소학』 두 책에 있었다. 이(理)와 기(氣)가 서로 발현한다는 변론은 대현의 학설을 절충한 것이었고, 도(道)와 기(氣)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잘못된 논의를 분석해 냈다. 윤리를 자신의 책임으

로 여겨 지극히 공명정대한 입장을 지켜 나갔으며, 법규만을 따라 하학상달(下學上達)을 실천했으므로 ‘백세 스승’이라는 평이 이미 한 시대의 공론으로 되어 있었다. 그 도는 뒷사람에게 길을 열어 준 염(濂)·락(洛)의 공적을 계승했으며, 시대는 태평의 치적을 크게 이루었던 효릉(孝陵) 때였다. 임금과 신하로서 뜻이 이미 합치되어 동궁에 있을 때부터 신임을 받았고, 은연 중에 기약이 이루어져 뜻을 담은 묵화(墨畵)를 직접 하사했다. 다행히도 왕의 교화를 보필하는 책임자가 있어 크게 빛나는 아름다운 정사를 당시에 보게 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마침내 지방에서 영영 세상을 떠나고 말 줄을 어찌 알았으리오. 7월 깊은 산중에서 창오(蒼梧)의 원통한 눈물을 뿌렸고, 한 조각 붉은 깃발에 옥과 현감의 옛 직함을 그대로 썼었다.(중략)

이에 이 달 8일에 증영의정 문정공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는 바이니, 나라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고 선비들이 모두 귀의할 곳이 생겼다. 공자·정자·주자의 도통을 접해 그 연원이 멀기에 정암(靜菴)·퇴계(退溪)·우계(牛溪)·율곡(栗谷)의 반열에 올려서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바이다. 아! 문(文)이 여기에서 충분히 징험되고, 도(道)가 이로 말미암아 추락하지 않게 되었다. 선비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진작시키는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벼슬아치를 고무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감동하지 않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시하는 바이니, 이런 뜻을 잘 알리라고 믿는다.”²⁹⁾

29) 『정조실록』 권 45, 정조20년 11월 기유.

그러면 왜 정조는 여러 유학자 중에 하서를 제일로 쳤는가? 정조는 군주도통론(君主道統論)을 내세워 산림에게 있던 도통을 자기에게 귀일시켰다. 그러니 하서를 문묘에 배향한 것도 선비들의 의지라기보다 자기의 의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조 당시에는 청나라로부터 필기문학(筆記文學)류가 많이 들어와서 문체반정(文體反正)을 일으키고 있었다. 정학을 바로 세움으로써 잡학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정조는 하서를 재발견한 것이다. 하서의 학문을 정학(正學)으로 판정한 것이다. 하서가 공자와 주자의 정학을 이어 받았고, 퇴계와 고봉의 四·七논변에도 적극 참여해 참신한 학설을 고봉을 통해 제시했으며, 소재(蘇齋) 노수신의 도기일원론(道氣一元論)을 비판해 정학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서는 동방의 주자(周子: 周敦頤)요, 호남의 공자라는 것이다. 또한 정조는 국왕 중심의 탕평론을 제기했다. 국왕을 중심으로 신료들의 충성스런 보좌를 희구하고 있었다. 그 모델을 인종-하서와의 관계를 이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금의 뜻이 훌륭하고 훌륭한 신하의 협조가 따르는 이상적인 군신관계를 지향한 것이다.

3. 사상

하서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다. 인품이 고결하고 인후(仁厚)해서 3대의 인물, 인자의 기상이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왔다. 율곡은 “清水芙蓉

光風霽月”이라고 비유했다. 하서는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제자로서 호남에 유배되어 왔던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 눌재(訥齋) 박상(朴祥) 등에게서도 배웠다.

그는 문경공(文敬公) 이항(李恒)·문절공(文節公) 유희춘(柳希春)·문효공(文孝公) 노진(盧禎)·문충공(文忠公) 박순(朴淳)·문헌공(文憲公) 기대승(奇大升) 등 호남 5현(五賢)³⁰⁾을 비롯한 송순(宋純)·최산두(崔山斗) 정철(鄭澈) 등과 교류했다. 이들은 목릉성세(穆陵盛世) 직전의 인물들로서 도학과 함께 출처가 문제되는 시기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하서는 처음부터 은거할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과거시험도 보았고 벼슬도 했다. 학문은 정학을 지향했다. 공자와 주자를 존경했고, 기묘명현의 영향을 받아 『소학』과 『대학』을 학문의 바탕으로 삼았다. 그러나 대운과 소운이 싸우는 혼탁한 정국에서 정학을 일탈해 한때 노장(老莊)에 빠지기도 했다. 퇴계도 “김하서는 성균관과 옥당(홍문관)에서 서로 교유했는데, 그 사람은 역중(域中)에 노닐면서도 회포는 물외(物外)에 풀어놓았다. 학문의 초입처가 다분히 노장(老莊)이었기 때문에, 중년에 가서 자못 시와 술에 빠져 이를 애석하게 여겼더니, 들으니 그가 만년에 도학에 뜻을 두었다고 한다. 근자에 바야흐로 그의 논학문자(論學文字)를 얻어보게 되었는데, 그 식견이 정밀함을 극했다. 생각건대 그가 한가한 가운데 얻은 바가 이러하니 매우 가상할 만하다”³¹⁾ 고 했다.

30) 『고종실록』 권21, 고종21년3월 경인.

31) 『陶山全書』 卷21, 書 答奇明彥書

퇴계는 하서의 문인 변성온(邊成溫)에게 준 시에서도 “河西當日頗清虛 晚歲功深學遂初”라고 읊어 하서가 노장의 청허지학에 심취했음을 내비치고 있다. 하서도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전략) 내 자신이 진실로 얻은 것이 아직 없을 때 문득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어 10년 동안 마음대로 노닐며 내왕해 그저 세월을 잃었으니, 그 전에 조금 얻었던 학식도 처음 반궁(泮宮: 성균관)에 유학(遊學)할 때 폐했고, 두 번 재로는 시와 술로 방랑하는 사이에 폐했다. 한적하고 조용한 때가 적었으며, 잡란하고 혼들러 출렁대는 날이 많았다.”³²⁾ 라고 실토했다.

하서는 34세 되던 1543년(중종 38) 세자시강원 설서로 임명되어 인종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는데, 세자는 하서의 명망을 듣고 『주자대전』을 하사하기도 하고, 묵죽(墨竹)을 그려주기도 했다. 그리하여 성군(聖君)이 될 자질을 가진 세자(뒤에 인종)를 도와 훌륭한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종이 일찍 죽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자 하서는 부모의 부양을 위해 일시 옥과 현감을 맡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를 두고 하서를 출처가 분명하다고 추앙하는 것이다. 하서는 인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해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조정에서 여러 차례 불러도 나가지 않고 인종이 죽은 7월 1일이면 산

속에 들어가 묵 놓아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죽은 뒤에 옥과 현감 이후의 관직은 쓰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하서가 성리학 연구에 몰두한 것은 47세 이후였던 것 같다. 그때부터 하서는 노수신·이항·이항·기대승 등과 함께 성리학에 대한 토론을 했다. 하서는 기고봉이 퇴계와 47이기론에 관해 왕복 서한을 주고 받을 때 고봉의 자문을 받아 정밀한 이론을 고봉을 통해 많이 제공했으나 허명(虛名)이 날까봐 일체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하서는 일재 이항의 태극음양일물지설(太極陰陽一物之說)을 반박한 고봉의 이론을 지지했다. 하서는 이(理)의 절대성, 영원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항의 태극음양일물설을 반박해 이기(理氣)는 일물이 아니고 다만 혼합되어 있을 뿐이며, 도기(道器)의 분계(分界)가 엄격하다는 것이다.³³⁾ 또한 세상에서 이르는 기대승의 47왕복서는 사실상 하서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다고 했다.³⁴⁾ 그러나 자신의 명성이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논변에 대해 끝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³⁵⁾

하서는 천명도설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근래에 발견된 천명도(天命圖)에 잘 반영되어 있다. 천명도는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의 『천명도해』(天命圖解)에 보철(補

32) 『河西全集』 卷 11, 書 與友人書.

33) 蓋理氣混合 盈天地之間者 無不自其中出 而無不各具 不可謂太極之離乎陰陽也 然道器之分 不能無界限 則決不可以人爲馬也(『河西全集』 卷 11, 書 與一齋書)

34) 世謂奇高峰四七往復書 多出於河西之手 蓋奇是河西之甥(『弘齋全書』 卷 173, 日得錄 人物)

35) 時高峰退處於鄉 每詣先生 討論義理 而深疑退溪四端七情理氣互發之說 來質于先生 先生爲之剖析 論辨極其通透情密 高峰所得於先生者如此 故及先生歿後 高峰與退溪論互發之非 多述先生之意以辨之(『河西全集』 符錄 卷 3, 年譜 五十歲)

綴)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다. 이는 『하서전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하서의 '천명도후'(天命圖後)에 의하면 1549년(명종 4)에 작성된 것이었는데, 정지운의 천명원도(天命原圖)의 서문을 쓴 해로부터 6년 뒤의 일이다.

이는 하서가 정지운의 천명원도를 살펴보다가 자득한 바 있어 작성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도해(圖解)까지 붙이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³⁶⁾ 천명도에는 정지운의 천명원도와 천명구도, 퇴계가 수정한 천명신도가 있다. 하서는 정지운의 천명원도를 보고 적지 않게 감동을 받았다. 하서의 천명도는 천권(天圈)과 지권(地圈)에 있어서는 정지운의 천명원도와 거의 동일하나, 인권(人圈)은 차이가 있다.

1) 천명의 일관된 흐름이 동 식물의 경우 '성'(性)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인간의 본성은 '중'(中)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인간의 성정(性情)을 나타낸 심권(心圈)에서, 내원(內圓)은 '중'자를 중심으로 해 칠정을 표현하면서 음양의 흑백으로 담고 있다.

3)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선악을 화(和)와 과불급(過不及)으로 나타냈다. 즉, 선악은 기(幾)에서 나뉘어지는데, 명(命)으로부터 중(中)으로 곧게 이어지고 화(和)로 곧게 이어지는 것은 선(善)이 되고, 과불급으로 이어진 것은 악(惡)이 된다는 것이다.³⁷⁾

이처럼 그의 천명도는 『중용』 사상을 바탕

으로 해 천도(天道)를 성(誠)으로 파악하고, 또 천명을 인성인 '중'으로 직결시켰는데, 천명의 흐름을 『중용』의 기본 명제인 성(誠)과 중(中) 두 가지 사상으로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³⁸⁾

하서는 정학(正學)을 옹호하고, 이단을 배척했다. 그는 특히 노불(老佛)과 육왕학(陸王學)을 비판했다. 그는 화담(花潭)과 친했지만 그 학문 방법이 선가(禪家)의 '돈오'(頓悟)와 같이 상달(上達)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의 『숙흥야매잠주해』(夙興夜寐箴註解)에 대해서도 퇴계와 함께 선가(禪家)의 말이 섞여 있다고 비판했다.

택당(澤堂) 이식(李植)도 "우리나라에서 도학을 하는 이 가운데 선학을 섞은 것은 소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논평했다.³⁹⁾ 하서는 "세상의 선(禪)을 배우는 자가 없다 해도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제부터라도 선학에 빠진 자가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속담에 도둑이 없다고 해서 짓지 않는 개를 기를 수 없다고 했으니,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⁴⁰⁾ 라고 하자, 퇴계는 "양론을 자세히 보건대 후지(厚之: 김인후의 자)의 사려(思慮)는 깊지만 과회(寡悔: 노수신의 자)의 견해는 소홀하다.

옛적에 정문(程門)의 사람들은 모두 정자를 배운 사람들이었지만, 그 뒤에 도도히 선(禪)에 흘러 들어갔으며, 근세의 나정암(羅整菴)은 정

36) 崔英成, 河西金麟厚의學問과 出處 龍鳳『東洋古典研究』第12輯 1999, 156쪽.

37) 동상 156-157쪽.

38) 동상

39) 盧蘇齋 自海中還忽爲禪學退溪大駭 亦不能與之解時以詩句挑之而蘇齋又答之甚峻 自是爲道學者問難禪學自蘇齋啓之眞如朱子之時 忽出陸象山也(『澤堂別集』 卷 15, 追錄)

40) 世無學禪者 亦不可不以爲慮 又安知自今有流於禪者乎 諺稱不可以無風而畜不捕之猫 可戒可戒(『河西全集』 卷 11, 書與友人書)

자와 주자를 존신해 선학(禪學)을 꾸짖고, 육한 것이 지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모든 의론이 반드시 정자·주자와 더불어 상반되어 마침내 선학의 길로 흘렀으니, 이 어찌 배운 뒤에 흐른 것이겠는가? 식견이 한번 잘못 되면 반드시 선(禪)에 떨어지고 만다. 이로써 말하자면 우리들은 남만 염려할 뿐 아니라, 또한 자신들도 걱정해야 할 것이다”⁴¹⁾ 라고 했다. 이러한 하서의 사상을 종합해 우암 송시열은 “선생은 제설 중에서 온당하지 못한 것을 증정(證訂)함에 있어 털끝만한 것이라도 반드시 분별했다.

화담(花潭)에 대해서는 그 병폐가 돈오(頓悟)의 지름길에 흐를 것을 염려했고, 일재(一齋)에 대해서는 도(道)와 기(氣)를 혼합해 일물로 여기는 것을 병통이라 했으며, 인심도심(人心道心)을 논함에 있어서는 나정암의 체용설(體用說)을 물리쳤다. 그리고 퇴계 선생의 사단칠정(四端七情) 이기호발론(理氣互發論)에 있어서는 고봉기선생이 이를 깊이 의심하고 선생에게 질문했는데, 패연(沛然)해 조금도 막히는 바가 없었으므로 드디어 (계발된 나머지) 이 선생과 변론한 것이 거의 수만 번이었으니, 세상에 전하는 ‘퇴고왕복서’(退高往復書)가 그것이다.

대개 선생은 도리에 통연(洞然)해 의심이 없었다. (누구든지) 두드리면 곧 응했으니, 소매 속에 넣어 둔 것을 꺼내주는 것과 같이 곡당(曲當)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퇴계

와 같은 정밀한 분으로도 여러 번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그를 좇았다”⁴²⁾

하서는 예학(禮學)에도 정통했다. 그러나 그의 예학에 관한 저술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조선 예학의 태두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하서의 설을 취해 예서를 고증한 것이 많다고 하고⁴³⁾, 또 김신겸(金信謙)이 그의 『증소어록』(增巢語錄)에서 “하서가 예를 설한 대목을 보면 그를 절의지인(節義之人)이라고만 논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방증할 수밖에 없다. 그가 지은 『가례고오』(家禮考誤)는 『주자가례』의 권문(闕文)과 의의(疑義)에 대해 수정한 것으로 김장생이 이 책에 의지해 예서를 고증한 것이 많다고 한다.⁴⁴⁾

『가례고오』는 현존하는 문헌상 『주자가례』에 대한 연구로서는 가장 앞선 시기의 저술이라 할 수 있다. 하서는 도학자일 뿐 아니라 훌륭한 시인이었다. 『하서전집』이 대부분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훌륭한 시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서의 학문과 사상, 출처를 종합해 정조는 “내가 선정(先正) 문정(文靖: 김인후)에 있어서 그옥이 생각하건대, 위로 정자와 주자가 창명(倡明)한 줄기를 파악하고 아래로 문순(文純: 이항)·문성(文成: 이이)이 개발한 공을 열어 경양하는 마음이 대단히 절실하다”⁴⁵⁾고 해 하서를 문묘에 종사한 것이다.

41) 『河西全集』 卷 11, 與盧寡梅論夙興夜寐箴解 別紙

42) 『宋子大全』 卷 154, 河西金先生神道碑銘

43) 文元公金先生以先生說 考證禮書者多有焉(『河西全集』 附錄 卷 1, 神道碑銘)

44) 朴淵等疏(中略) 文明於節文義則 修正家禮之闕文疑義 而考據無不精當 文元公臣金長生 多取其書 以證禮書焉(『河西全集』 附錄 卷 4, 年譜)

45) 予於先正文靖 竊以爲上窺程子朱子倡明之緒 下啓文純文成開發之功 景仰之私 曠百琛切(『정조실록』 권 44, 정조 20년 6월 병신)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선생에 대한 정조대왕(正祖大王)의 평가

金 容 淑(본회 이사)

본고를 집필하게 된 배경

정조대왕(1752~1800)은 조선조 22대왕으로 휘는 이산(李荊)이요, 호는 홍재(弘齋)이다. 정조대왕은 탕평책으로 당파를 초월하여, 능력 본위로 인재를 등용하고,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규장각을 설치하여 문운(文運)을 융성시켰고, 활자를 다량 제조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으며, 자기 문집인 <홍재전서> 184권을 저술하였다.

폐해가 많은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여, 백성을 보살피는 선정을 베풀었다. 서얼(庶孽)출신도 등용하였고, 천주교를 크게 박해(迫害)하지 않았다. 무예와 서예, 그림에도 능통하였고 유학 경전에 통달하여 사림의 영수(領袖)로 추앙 받은 성리학의 대가이며 성군(聖君)이었다.

정조대왕 본인이 이토록 학문에 통달하고 문화를 중흥시킨 대학자로서 서거 후 236년이나 되는 하서를 문묘에 종향한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서의 탁월한 위치를 재확인한 증거라 할 것이기에 이에 전거(典據)를 제시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하서 김인후 선생 약전

하서 김인후 선생은 1510년(중종 5년) 장성군 황룡면 대맥동에서 탄생하였다, 자는 후지(厚之)요, 호는 하서 또는 담재이고 본관은 울산(蔚山)이며 시조는 신라 경순왕의 두번째 왕자인 학성 부원군 김덕지이며 1560년(중종 15년) 51세에 서거하였다. 22세에 사마시하고, 31세에 문과하여, 홍문관(弘文館) 부수찬(副修撰) 등을 역임할 때 중종에게 홍문관차자(弘文館劄子: 상소문)를 올려 군덕(君德), 용현(用賢), 정사습(正士習) 소학(小學) 및 삼강교학(三綱敎學), 향약(鄉約)의 시행과 언로(言路)의 확충, 기묘사화 때 희생된 정암 조광조 등 명현(名賢)의 신원(伸冤)을 목숨을 걸고 처음으로 주청하였다.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說書) 때는 세자(인종)를 책임 보도(輔導)하면서 도학과 군왕의 덕목과 왕도에 의한 지치(至治)에 대하여 강론하여 감화케 하였다. 인종왕 즉위 즉시 조광조 등 명현의 신원을 풀어 도통(道統)을 잇게 한 것은 하서의 공이라 할 수 있다. 인종왕이 재위 8

개월 만에 승하하자,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여 수의돈세(守義遜世)하고, 두문자폐(杜門自廢)하였다. 명종왕이 7차례나 벼슬을 내렸으나 불취하여, 인종왕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켰으며, 성리학(性理學)을 연구 정진하여, <천명도(天命圖)>,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가례고오(家禮考誤)>, <백련초해(百聯少解)> 등을 저술하였으며, 태극음양론(太極陰陽論),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통달하였다. 천문, 지리, 율력, 산수, 의약, 복서, 예악에 이르기까지 통요하였으며, 필법에도 극치를 이루었다. 시와 부(詩,賦)를 1700여수를 남겨 전해오는데, 모두 도학과 도덕에 연유한 주옥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국문학에도 조예가 높아 「자연가」 등 3수가 전해오며, 송강 정철의 성산 가단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조대왕은 도학, 절의, 문장을 겸비한 분은 오로지 하서 한 사람뿐이고 ‘천지 중간유이인중니원기자양진(天地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이라 말한 사람도 오직 하서 한 사람뿐이며, 도학의 은미하고 오묘한 부분을 처음으로 발명하여, 군현(群賢)을 일으킨 분이며, 사도(斯道)가 실낱같이 아슬아슬하게 끊겨가는데 하서가 드디어 일으켰다고 지적하였다. 하서 서거 후 236년 만인 1796년(정조20년) 정조대왕의 의지로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문묘(文廟)에 배향된 동국 18현 중 한 분이다. 성균관과 향교, 필암서원과 여러 서원에 배향되었다.

정조대왕의 하서에 대한 평가

정조대왕 10년 3월 효능(孝陵:인종의 능)을 참배하고, “고유신(故儒臣) 김인후는 계우(契遇)

가 만고에 광절(曠絕)하다. 효능을 전알(展謁)한 뒤에 어찌 뜻을 보이는 행사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예조(禮曹)로 하여금 날을 가리어 치제(致祭)케 하라” 하고, ‘어제사제문(御製賜祭文)’을 주어 같은 해 4월 4일 좌부승지 박천행을 필암서원에 보내 제사를 모시게 하였다.

그 제문은 하서의 도학과 절의, 문장을 구구절절 경모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수창절학대본중정(遂倡絕學大本中正: 끊긴 도학을 드디어 창기시켰으며, 큰 근본이 치우치지 않고, 바르다), 포서상양광제무변(抱書徜徉光霽無邊)’이라 하였는데, 위의 용어는 성인에게나 쓰는 말로 최대의 찬사라 할 것이다.

정조대왕 20년 6월 정사를 논의하는 하서 자리에서 ‘여어 김하서 별유기 모언부 도학야 절의야 문장야 무일불비자 독하서일인(予於金河西別有起慕焉夫道學也節義也文章也無一不備者獨河西一人矣)’라 하였는데 ‘내가 김하서를 특별히 존모하는 것은 도학과 절의 문장을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은 오직 홀로 하서 한사람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정조대왕 20년 6월 교서에서

“여어 선정 문정절이위 상규정자주자 창명지서 하계 문순문성 개발지공 경양지사 광백미절(予於先正文靖竊以爲上窺程子朱子倡明之緒下啓文純文成開發之功景仰之私曠百采切)”이라 하였는데, 문정(河西)은 위로는 정자와 주자의 창명한 서업을 엿보아 알았으며, 아래로는 퇴계와 율곡이 개발한 공업을 계도(啓導)한 분이니, 경양하는 마음이 백대가 떨어져 있어도 크고 깊게 더욱 간절하다라고 하였다.

정조대왕 20년 6월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선정 문정지 직심정맥 창기군현 수이문순지 진적천이 역미면 취질이결의 문순 소위 도학 무윤비운자 성격언이 (先正 文靖之 直尋正脈 倡起 群賢 雖以文純之 眞積踐履 亦未免 就質而決疑 文純 所謂 道學 無倫比云者 誠格言爾)’라 하였는데, 선정 문정은 도학의 정맥을 바르게 찾고, 많은 현인을 일으켜 번창시켰다. 이퇴계와 같이 진실되게 쌓아 밝은 학문이지만 역시 하서에게 질문하여 의심나는 것을 해결하였다. 이퇴계가 말하기를 ‘도학에 있어서는 하서와 비교할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은 진실로 격언이다.

정조대왕 20년 8월 비답에서

‘김문정 도학지진정독실 여지 소소존상 약언 기선행후지 직내방외지공즉 아동제일인 (金文靖 道學之眞正篤實 予之 素所尊尙 若言 其先行後知 直內方外 之工則 我東第一人)’이라 하였는데 김문정의 도학이 진정 독실하여, 내가 평소 존상하고 있는 바이며, 먼저 행하고, 뒤에 알며 공경(恭敬)으로 안을 바르게 하고, 의(義)로서 밖을 올바르게 하는, 공부로 말하면 실로 우리나라에서 제일인자이다.

정조대왕 20년 8월 비답에서

－前略－ ‘입아조 이후 수천성리 시견대원 천지중간지유 중니 자양 이인즉 문정일인 이이 수사 오현이하 종사제유 재금세 개필양 여어문정(入我朝 以後 首闡性理 始見大原 天地中間只

知有 仲尼：孔子 紫陽：朱子 二人卽 文靖一人而已 雖使 五賢以下 從祀諸儒 在今世 皆必讓與於文靖)’－後略－ 이라 하였는데 우리 조선에 도학이 들어온 이후 비로소 큰 근원 보고, 성리(性理)를 먼저 천명(闡明)하여 천지 중간에 공자와 주자가 있을 뿐이라고 갈파한 사람도 문정 한 사람뿐이다. 문묘 종향을 말한다면 오현(五賢)〈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조광조, 이황〉이하 여러 유학자가 종사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모두 반드시 문정(하서)에게 양보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정조대왕 20년 9월 비답에서

‘김문정 즉 대학 서명 미사오지 시위발명 거경직내지공 도학연원지정 실위 사문지종장 (金文靖 卽 大學 西銘 微辭奧旨 始爲發明 居敬直內之工 道學淵源之正 實爲 斯文之宗匠)’이라 하였는데, 김문정은 대학과 서명에 밝아 은미한 말과 매우 깊은 뜻까지 파헤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발명하였으니, 거경직내의 공부와 도학 연원의 바름은 실로 도학의 우두머리이다.

정조대왕 20년 9월 문묘(文廟) 종향(從享) 윤허 비답에서

‘선정 문정 즉 아동지주자야 양정장주 선유성묘 이사주자 독루어 종사지열 재양정장주지심 안호부호 이등금일지칭 즉 조문정, 이문순, 이문성, 송문정지심야 윤락지고서지금 의재증기에 신기사이이 소기삼상 갱하지난 이등소청 선정 문정공 김인후 배식 문선왕묘정 사하시영에 관 취고전례 복일거행

(先正文情 卽 我東之周子也 兩程張朱 先侑聖廟 而使周子 獨漏於 從祀之列 在兩程張朱之心 安乎否乎 爾等今日之請 卽 趙文正 李文純 李文成 宋文正之心也 允諾之姑徐至今 意在 重其禮 慎其事而已 疎既三上 更何持難 爾等所請 先正文靖公 金麟厚 配食 文宣王廟庭 事 許施令禮官 取考典禮 卜日舉行) 이라 하였는데, 선정 문정은 우리나라의 주자(周子:염계 주돈이)이다. 옛날 중국에서 정호, 정이, 장재, 주희가 먼저 문묘에 종향되고, 주자가 홀로 종향되지 않았다면 먼저 종향된 정호, 정이, 장재, 주희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편안하지 않겠는가? 지금 너희들이 소청한 일도 이와 같으니 문정(하서)이 문묘에 종향되지 않는다면 조정암, 이퇴계, 이율곡, 송우암의 마음도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윤허가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문묘종향의 예를 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늦어졌는데, 너희들의 소청이 이미 세 번이나 있었으니, 어찌 더 고집만 하겠는가? 선정 문정공 김인후의 문묘종향을 허락하니, 예관으로 하여금, 전례를 잘 알아서 좋은 날을 가리어 문묘에 종향토록 하라.

문묘종향을 윤허한 후 증직(贈職)을 내렸는데,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겸령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兼領 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를 추증하고, 명부조(命不祔) 하였으며, 그 해 10월에 시호를 문정(文靖)에서 문정(文正)으로 바꾸었다.

정조대왕의 흥재전서 초록에서

선비들이 하서를 조선조 4백년에 제1인물로 삼는 것은 진실로 격언이다. '선배이 하서 위 4

백년 제일인물자 성격언이 (先輩以 河西 爲四百年 第一人物者 誠格言耳)' 다른 사람이 발명하지 못한 동방리학(東方理學)을 발명하였는데도, 지금까지 공부자의 사당에 종향되지 못하였으니 내가 임금의 지위에 있으면서 평소 성현의 글을 읽고, 문치를 숭상한 본뜻이라 하겠는가? 수백년 못했던 일을 이제야 이루었도다.

'수백년 미황지전 성어금일(數百年 未遑之典 成於今日)

후기

위와 같은 정조대왕의 하서 선생에 대한 평가는 도학자이자 성군인 정조대왕이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며, 위에서 거론된 인물들의 자손이나 후학 또는 지역과 각 학파에서도 이론을 제기하거나 부정하지 못할 정확하고 진실된 평가였다고 할 수 있다.

정조대왕의 독서론

요즈음에는 평소에 독서하는 사람이 드문데 그런 현상이 나는 너무도 이상하다. 하늘 아래 책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일찍부터 이렇게 생각해 왔다. 첫째로 경전을 연구하고 옛날의 진리를 배워서 성인이 펼쳐놓은 깊고도 미묘한 비밀을 들여다본다. 둘째로 널리 인용하고 밝게 분별하여 천 년의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시원스레 해결한다. 셋째로 호방하고 힘찬 문장 솜씨로 지혜롭고 빼어난 글씨를 써내어 작가들이 동산에서 거닐고 조화의 오묘한 비밀을 캐낸다. 이것이야말로 우주 사이의 세 가지 통쾌한 일이다. 안대희 『정조치서어록』 21~22쪽

清白吏 사암 박순(思菴 朴淳)의 생애와 사상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뛰어난 시인이자 정치가

뛰어난 시인이자 높은 수준의 학자. 탁월한 정치가로 모두에게서 칭송을 받았던 조선의 영의정 사암 박순을 기억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많지 않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그의 역사적 평가가 어떠했고, 높은 수준의 학자나 정치가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부터 살펴보자.

우선 조선 500년의 정사(正史)인 『조선왕조실록』부터 읽어 보자. 「선조수정실록」의 1589년 음력 7월 21일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

전 의정부 영의정 박순이 세상을 떠났다. 박순의 자(字)는 화숙(和叔)이며 호는 사암이다. 순은 타고난 자질이 맑고 순수하며 평탄하고 화평해 모난 점을 보이지 않았다.

일찍부터 화담 서경덕에게 학문을 배웠고 퇴계 이황과도 교류했다. 이황이 항상 칭찬하기를, “박순과 상대하다보면 한 조

각 맑은 얼음을 대한 것같이 정신이 상쾌해짐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글 잘하기로 이름을 날렸다. 명종이 친히 과거시험을 보인다가에 응시해 합격하자 임금은 그를 큰 인물로 여기고 아주 귀하게 대접했다. 그래서 박순이 관각(館閣)에 근무하며 권신(權臣) 윤원형(尹元衡)·이양의 의견을 거슬러서 중벌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임금의 배려로 파면에 그칠 수 있었던 것이다. 뒷날 그가 다시 발탁되어 두 권신을 탄핵해 쫓아내자 그때에야 선비들이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

조정이 숙청되자 박순은 어진 무리의 종주(宗主)가 되었다. 박순은 노수신(虜守愼)과 함께 14년 간 정승의 지위에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지만 임금에게 건의해 바르게 고쳐진 것이 많지 않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박순은 스스로 경세제민(經世濟民)에는 재주가 부족하다 여기면서 어진 이를 천

거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양보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기울였다.

때문에 이이(李珣)와 우계(于溪) 성혼(成渾)을 힘껏 추천해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하려 했다.

동서 분당이 일어나자 박순은 이이와 성혼의 편을 든다고 무거운 탄핵을 받으며 간사한 사람이라고 지목 받았다. 심지어 “세 사람은 얼굴 모습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나 임금은 “착한 부류들끼리 상종한다고 해서 도에 무슨 손상이 있겠느냐”라며 무시해버렸다. 박순이 은퇴한 뒤에도 임금은 그를 다시 등용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이때에 이르러 세상을 떠나자 그의 나이가 겨우 67세였으니 조야에서 애석하게 여겼다. 박순은 문장에서는 한나라나 당나라의 격과 법도를 따르려 했으며, 더욱이 시에 뛰어나 한 시대 시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른바 ‘3당시인(三唐侍人)’이라 칭찬받던 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이달(李達) 등이 모두 그의 문인이었으니, 이때부터 문체가 크게 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문집 『사암집(思菴集)』이 세상에 나와 있다.

이런 기록이 사암 박순의 「줄기」로 『조선왕조실록』에 전해지고 있다. 조목조목 분석해 보면, 사암의 일생과 그의 업적의 대강은 모두 열거된 셈이다.

윤원형·이양을 퇴출시킨 골은 신하

중종 때부터 시작된 사화로 뛰어난 선비들이 무참히 죽거나 귀양을 가야 했다. 정암 조광조를 비롯한 대학자들이 무참히 죽어간 기묘사화가 그 대표적인 참극이다.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어린 명종이 등극했다.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정권을 잡고 패악한 정치를 펼쳐 백성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인종의 외척 윤임(尹任)과 명종의 외척 윤원형은 이른바 대운과 소운이라고 불리며 싸우다가, 모든 권력이 문정왕후의 친정오라버니이던 윤원형에게로 넘어가면서 세상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다.

명종은 자신의 외숙인 윤원형의 횡포를 막아보려고 왕비 심씨의 외숙인 이양을 등용했으나 이양은 윤원형보다 더욱 심한 학정을 베풀어 세상은 더 비참해졌다. 당년 43세의 사암 박순이 대사간에 오르자 당대의 직신(直臣)이자 대사헌의 지위에 있던 이탁(李鐸)을 간곡하게 설득해 양사(兩司) 합동으로 윤원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하늘을 찌르던 윤원형의 권력에 맞서 그를 탄핵한 사암의 용기는 대단했다. “세도를 만회하는 일이 나의 책임이다. 직위에 죽겠다.”(挽回世道着 吾責也 死職耳)는 결의는 당시의 엄혹한 분위기로서는 감행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한 번의 「상소」로 되지 않자, 다시 「상소」를 올렸다. 첫 번째 「상소」는 을축년 1565년 8월 3일에 올렸는데 두 번째 「상소」는 8월 14일에 올렸으니, 11일 만의 일이다.

두 번째 「상소」에서 다시 상세하게 윤원형의 부정과 비리를 낱낱이 열거해 밝히니 윤원형의 생질인 명종도 어찌할 수 없게 되어, 끝내 그를 퇴출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 방법으로 이양도 쫓아내고 마침내 윤원형에 빌붙어 온갖 비리를 감행하던 정승 심통원(沈通源)까지 퇴출시키자 비로소 정부가 숙청되고 선비들이 사기가 앙양되어 조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영남에서는 퇴계 이황·남명 조식 등에 게 벼슬이 다시 내려지고 대곡 성운·고봉 기대승이나 율곡 이이·우계 성혼 등이 발탁되면서 어진 선비들이 조정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사암 박순이 마침내 착한 무리들의 종주가 된 것이다. 14년 동안 정승의 지위에 있거란 쉽지 않다.

대사간·대사헌, 이른바 간쟁 기관의 장으로 있을 때는 이처럼 당당하던 사암도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는 자신이 인정했던 대로 경국제세의 통치 능력은 부족했던 때문인지 큰 정책을 건의한 예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했던 바와 같이 “어진 이를 천거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양보함”(薦賢讓能)에는 뛰어나 율곡이나 우계 같은 대학

자들이 나라에 봉사할 기회를 주었다.

이밖에도 당대의 어진 여러 신하들이 사암의 추천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가졌다.

「선조수정실록」 원년인 1568년 8월 초 하루의 기록을 보면, 퇴계 이황이 홍문관 겸 예문관 대제학에 오르는 기사가 나온다.

이 기사야말로 사암 박순이 어떤 인물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황이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하게 하다”라는 기사에 이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이때 박순이 대제학이 되자 이황은 제학으로 있었는데, 박순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높은 나이의 대석학이 다음 자리의 벼슬에 있고 나이가 어리고 학문이 부족한 제가 감히 윗자리에 있음은 합당하지 않으니 서로의 자리를 바꾸어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이황도 힘껏 사양해 다시 벼슬이 교체되어 사암이 대제학이 되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다. 지위야 정승보다 아래이지만, 만인이 선호하는 벼슬이 대제학 아닌가. 그런 벼슬을 흔쾌히 선배 학자에게 양보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박순이었으니 그가 왜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선비인지 알 수 있다.

공정하게 조정하려다 당인으로 몰리다

선조 8년에 일어난 동인과 서인의 분당으로 조선은 당쟁 국가로 비난을 받게 된다.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추천하고 권장해 나라를 건지게 하려 했던 사암은, 율곡의 친구인 송강 정철과 함께 서인으로 몰려 치열한 당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율곡이 세상을 떠나고 우계가 귀향하자 사암은 조정에 홀로 남아 외로운 처지가 되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동인 송응개(宋應澥)·허봉(許篈)·박근원(朴謹元) 등이 사암을 조정에서 내보내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그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미 지쳐 있던 사암은 마침내 세상에서 물러나 은거하기를 결행하고는 은퇴하고 말았다. 14년의 정승 생활도, 겸하고 있던 병조판서까지 모두 버리고는 사위 이희간(李希幹)과 자신의 외동딸이 살던 백운 계곡으로 찾아간다. 세상을 뜨기 4년 전인 63세의 일이다. 지금으로 치자면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注院里)로, 예부터 산수가 아름답기로 세상에 이름난 곳이다. 창옥병(蒼玉屏)이라는 절벽이 백운 계곡을 휘감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바위를 돌고 돌아 세상의 근심을 잊게 해준다.

이곳에는 당대의 시인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형제들이 시와 술로 세월을 보

내고 있었으며, 당대의 명필 석봉(石峯) 한호(韓濩)가 자주 찾아왔다. 그래서 절벽에 글씨를 많이 써서 새기고 세상을 관조하며 사암은 말년을 보냈다. 자신이 마련한 배견와(拜鵝窩)라는 집에 거처하면서 그 곁에 이양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문우들이 모여들면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냈다. 적자가 없는 사암은 서자가 있었으나 그를 믿지 않고 - 뒷날 박순의 서자 박응서(朴應犀)는 ‘칠서(七庶)의 난(亂)’에 희생된다 - 외동딸과 사위에게만 의지하면서 포천에서 살았다.

사암의 묘소는 지금도 포천에 있고, 후학들이 ‘옥병서원(玉屏書院)’을 세워 그의 학덕을 기리고 있다.

이곳에는 우암 송시열이 지은 「신도비명」이 우뚝 서서 그의 일생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임금의 외숙이자 간신이던 윤원형, 왕비의 외숙인 권력자 이양, 두 권신을 추방한 용기의 사나이 박순은 선조대왕의 믿음직한 대신이었다. 선조대왕이 박순을 창찬하며 이르기를 “송균절조 수월정신(松筠節操 水月精神)”이라는 대찬사를 거리낌 없이 말했다. 소나무나 대나무의 곧은 절조에 맑은 물이나 맑은 달과 같은 깨끗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뜻이었으리라. 한 신하에게 바치는 찬사로서는 대단한 내용이다. 그만큼 지절이 높고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뜻이다. 희대의 정치가 백사 이항복은

사암의 「시장(狀仗)」에서 “옛말에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공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해 그의 위대한 용기를 찬양했다.

시비선악이 명쾌한 국제적 감각의 정승

청음 김상헌은 『사암집』의 「서문」을 썼다. 처음은 어린시절 사암 박순이 살던 집의 이웃에 살면서, 영의정으로 조정에 드나들던 사암의 풍모를 목격하며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일찍 떠나 뜻을 이룰 기회를 갖지 못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사암이 세상을 떠나고 56년이 지난 뒤에야 병난에 잃고 흩어진 글을 모아 문집이 만들어졌다.

김상헌은 몇 편 되지 않지만 제법 시를 모았고, 윤원형을 탄핵한 그 멋지고 용기 있는 「상소문」 두 편이 실려 있으니 다행이라면서 사암의 인물평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에 따르면, 사암은 조선 제일의 시인이라던 놀재(訥齋) 박상(朴祥)의 조카로, 한성 우윤이자 시인이던 놀재의 아우 육봉(六峰) 박우(朴右)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박상은 기묘명현이고 박우는 장원 급제의 문사였으니 우선 그 가계가 훌륭하다고 평했다. 젊어서는 화담 서경

덕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해 동료 학자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으며 간혹들이 왕권을 농락할 때 그들을 쫓아낸 직절의 신하이기도 했다. 또 퇴계·율곡·우계 등 당대의 학자들이 가장 존송하는 당세 제일의 인물이라고 칭찬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 가장 접반(接伴)을 잘했기에 그들은 사암을 제대로 알아보고는 “송나라 인물에 당나라 시풍을 지닌 인물”이라 했으니, 조선의 인물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칭찬했다는 것이다.

40년 가까운 벼슬살이에 이조 판서·대제학을 지냈는데, 그 가운데 14년은 정승생활을 했다. 녹봉은 전부 가난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희사하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청렴결백하기가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했다. 뛰어난 문장과 시로 일세의 맹주(盟主)였으나 자기 자랑은 일절 하지 않았다. 지은 글이나 시마다 인구에 회자되며 온 세상에 전승되었으나 자신은 숨기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선비나 학자는 극구 추천해서 좋은 벼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호사석재(好士惜才)’ 즉 선비를 좋아하고 재주를 아끼는 정신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간소한 벼슬아치는 물리치고 어진 신하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는 일에 늘 걱정을 아끼지 않았으며, 국가의 안위만 염려해

바른말과 곧은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 시비선악에 것처럼 명쾌한 정승이 없었다고 한다. 도가 행해지지 못하고 올리는 「상소」가 시행되지 못함을 알자 관복을 벗어던지고 높은 정승의 지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계곡에 숨었으니, 그만한 물러남(恬退)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찬양했다.

김상헌의 결론은 이렇다. 이러한 자신의 주장은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들이 다 아는 바이고, 세상의 남녀노소나 귀천이 따로 없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선생은 하늘과 땅 사이의 기운이고 국가의 보배이며 사림의 종장이라고 총평했다. 청음이 누구인가. 저 병자호란에 척화의 대표자로 심양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조선 민족의 혼을 끝까지 지킨 당대의 정승이자 대제학이 아니었던가. 그런 그에게도 사암은 찬양할 만한 인물로 보였던 것이다.

돌길의 지팡이 소리, 자던 새가 들더라

당대의 위인 사암의 호은 어디서 태동했을까. 사암의 선대는 충주 박씨로 개성에서 살았다. 조선왕조가 개국하자 서울로 옮겨와 살았으나, 난리를 피해 충청도의 공주와 회덕에 은거했다. 그 뒤 사암의 할아버지이자 놀재 박상의 아버지인 박지

홍이 처가인 전남 광주의 서씨 마을에 정착하게 된다. 놀재의 아우 박우는 장가들어 분가하면서 나주에 살게 되었는데, 이곳이 사암의 고향이 된다.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나무 하나가 제법 오래되어 사암을 아는 듯했다. 사암이 말을 탈 때 타고 내린 하마석 하나만 마당가 흙에 묻혀 있었다. 그 집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 육봉 박우의 묘소가 있다. 『사암집』을 보면 광주와 나주를 찾으면서 지은 시가 여러 편 있고, 벼슬하면서 자주 성묘를 다니고 고향을 찾았던 기록이 있다.

다만 사암에게는 적자의 후손이 없다. 따라서 그는 당시의 예를 쫓아 양자를 들이지 않고 외동딸이 시집간 포천을 낙향할 곳으로 삼아야 했다.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은퇴해 포천에 숨어 살다 세상을 마쳤기에 거기에 묘소가 있고 유적지가 있으며 서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사암의 문장은 한당(漢唐)의 품격을 되찾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시에 뛰어나 한 시대의 종주가 되었으니, 당대의 시인들이 모두 그의 제자였다는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조선 문학사에서 널리 알려진 3당시인 고죽 최경창·육봉 백광훈·손곡 이달이 바로 사암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사암의 시에는 절창이 많지만 그 가운데 유독 절창으로 꼽히는 시는 「방조운백」이라는 시 두 편이다. 그 첫째 시는 다음과 같다.

슬취해 지다 깨어보니 신선의 집인가 싶은데
구름 깬 널다란 골자기에 달이 지는군.
서둘러 혼자서 쪽쪽 뺐은 숲속으로 나오니
돌길의 지팡이 소리, 자던 새가 듣더라
醉睡仙家覺後疑 白雲平壑月沈侍
條然獨出脩林外 石逕筇音宿鳥知

참으로 시인다운 시다. 이 시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한때 박순의 별명이 ‘박숙조’였다는 말이 있다. “돌길의 지팡이 소리, 자던 새가 듣더라”의 ‘자던 새’라는 구절이 너무나 좋아 ‘숙조’가 별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허균의 아버지는 초당 허엽(許曄)이고 허균의 형이 하곡 허봉이다.

이들은 모두 동인으로 사암을 공격하던 정치적 반대파였다. 허봉이 유독 사암을 공격했는데, 그에 반해 그의 아우 허균은 『시화』에서 사암을 존숭하는 마음을 보였다. 사암이 별세하자 수백 편의 「만시」가 지어졌다. 그중에서도 우계 성혼의 시가 가장 절창이라고 허균은 평했다.

세상 밖의 백운산은 깊고 또 깊더니
시냇가의 초가집 다시 찾기 어렵겠네.
배견와 지붕 위에 뜬 삼경의 밝은 달이
선생의 일편단심을 비취준다네
世外雲山深復深 係邊草屋已難尋
拜甄窩上三更月 應照先生一片心
· 「만사암」挽思菴

성혼은 이 시에서 세상 밖의 백운계곡으로 깊이 숨어버린 사암의 높은 염퇴 정신을 찬양하고, 선생이 없는 초옥을 다시 찾기는 힘들겠다는 말로 선생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빼꾸기가 많은 그 곳의 집을 ‘배견와’라 일컬었는데, 그 지붕 위에 뜨는 달이 선생의 일편단심을 반영해주고 있다니 얼마나 청아한 시격인가. 은퇴한 노재상의 서거를 슬퍼하며, 흔적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다. 그래서 허균은 이 시가 최고의 절창이라고 칭했을 것이다.

우리는 포천 창수면에 있는 사암의 유적지를 찾았다. 그곳은 외손마저 혈맥이 끊긴 탓인지 덩실한 묘소나 우뚝 솟은 신도비, 넉넉한 모습의 서원인 ‘옥병서원’의 건물이 있어도 어딘가 쓸쓸함이 서려 있다. 다행히 포천의 유림들이 해마다 서원에 제향을 올리고 충주 박씨 종친회에서 묘소에 시제를 지낸다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만한 학문을 이루고, 그만한 정치가로서 대인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암의 후사로서는 그래도 처량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민족적 인물이나 위인에 대해서는 나라가 좀 나서서 유적지도 관리하고 기념사업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야박한 세태에 아픈 마음을 달래기 힘들었다.

사암이 세상을 떠나고 3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사암의 유물이나 유적

(遺著)는 대부분 사라졌다. 후손의 수도 적어 채길 수 없었는데. 더구나 6·25 전쟁 동안 포천의 창수면 일대가 격전지여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니 더욱 비통하다. 다행히 외증손자 때 이르러 겨우 모은 유작을 정리해 『사암집』으로 간행했고, 1850년경에 와서야 전라도 감영인 전주에서 목판으로 증보로 간행해 지금까지 전해지니 다행한 일이다.

당대의 제일 인물, 14년의 정승, 시단의 종주, 당나라풍의 시를 복원한 시인, 이렇게 큰 인물을 잊지 말아야 하리라. 이조 판서·대제학·영의정의 벼슬에 문학과 학문에 깊은 조예까지 인정 받아 임금이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렸건만, 그의 혜택을 입은 백성들이 그를 잊어서야 되겠는가. 사암을 기리고 기념하는 사업이 활성화되기만 기대해 본다.

〈사암 박순의 연보〉

1523년(1세)

10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다.

1540년(18세)

전사시에 합격하다. 화남 서경덕에게 나아가 수학하다.

1547년(25세)

부친상을 당하다.

1549년(27세)

겨울, 상을 마치고 입산해 독서하다.

1553년(31세)

8월, 정시에 장원 급제하다. 성균관 전적(典籍)을 거쳐 공조좌랑이 되다.

1561년(39세)

봄, 응교가 되다. 5월, 을사사화의 주역 임백령이 죽자 그의 시호를 '소공'(昭恭)이라 지어 올리다. 이에 권신 윤원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파직되어 나주로 귀향하다.(임백령 시호 사건) 12월 한산 군수가 되다.

1564년(42세)

1월, 직제학이 되다. 윤2월, 동부승지를 거쳐 좌승지가 되다. 10월, 이조 참의가 되다. 좌부승지를 거쳐 우승지가 되다.

1565년(43세)

1월, 대사성을 거쳐 대사간이 되어, 이양 등의 죄를 논하다. 2월, 이조 판서 송기수를 탄핵하다. 5월 대사헌 이탁과 함께 승(僧) 보우의 죄를 논해 절도로 유배시키다. 8월, 합사해 윤원형의 죄를 논해 식출시키다. 겨울, 대사헌에 특별 제수되다.

1567년(45세)

6월, 예조 참판이 되다.

1568년(46세)

2월, 중국에서 명종의 시제를 위해 태감 장조, 행인 구희직이 나오자 접반사가 되어 맞이하다. 이어 성헌·왕새 두 조사가 나오자 원접사가 되다. 2월, 대사헌이 되다. 3월, 반

송사로 서로를 다녀오다. 양판 대제학을 거쳐 한성부 판윤에 특별 제수되다. 7월, 성현·왕새가 돌아갈 때 반송사로 의주에 다녀오다. 8월, 이항을 제학으로 천거하여 실록 찬집청 각방 당상에 임명하게 하다.

1570년(48세)

봄, 예조판서가 되어 감사(監式)를 관장하다.

1571년(49세)

1월, 실록봉안을 위해 호남에 가다. 휴가를 얻어 광주·나주의 선영에 성묘하다. 가을, 의정부 우찬성에 특별 제수되다. 겨울, 「주자어류」를 간행할 것을 주청하다.

1572년(50세)

7월, 우의정이 되다. 8월 등극사로 중국에 가다.

1573년(51세)

2월, 환조하여 왕수인의 학술이 부정함과 그 폐단을 논하다. 3월, 좌의정이 되다. 겨울, 이이와 함께 「미출신인통대헌」(未出身人通臺憲)을 주청하다.

1575년(53세)

여름, 주청하여 서경덕을 좌의정에 증직하고 문강(文康)의 시호를 내리게 하다. 송도에 송양서원을 건립하고 서경덕을 배향하다. 가을, 재령의 노살주(奴殺主) 사건에 위관(委官)이 되어 죄를 다스리다. 이 일로 대간 허엽 등과 대립하다.

1579년(57세) 2월, 영의정이되다.

1580년(58세)

봄, 겸관내국(兼官內局)으로서 왕의 병을 간호하다. 강원 감사 정철이 노산군(단종) 묘를

개축하고 표석을 세우고 제사지낼 것을 아뢰자 이를 허가하도록 주청하다. 길재의 묘에 치제할 것을 주청하다.

1581년(59세)

4월, 성훈이 진덕경국지도(進德經國之道)를 논하는 「봉사」를 올리니 가납할 것을 주청하다. 성훈이 귀향하려 하자 참찬관을 겸대하여 경연에 입시케 하고 땔나무와 숲을 지급해달라며 주청하다.

1583년(61세)

2월, 경원의 번호 니탕개가 난을 일으키자 이이와 함께 비변사에서 계책을 세우다. 3월, 왕명으로 성훈 등 당시 인재들을 천거하다. 7월, 병조 판서를 겸하다.

1584년(62세)

봄, 이이가 졸함에 증직을 내리고 포상할 것을 주청하다.

1586년(64세)

가을, 휴가를 받아 영평 초정에 목욕하러 가다. 이때 영평현 백운계곡에 은거할 집을 지어 배견와·이양정·청냉담·창옥병들의 이름을 붙이다.

1589년(67세)

7월, 영평에서 졸하다. 10월, 종현산 동쪽 배견와 뒷산에 장사 지내다.

1643년(-)

「문충」의 시호를 내리다.

1643년(-)

『시암집』이 간행되다.

1649년(-)

양평 옥병서원에 배향되다.

선비 정신, 한국 홍보의 핵심 개념

임마누엘 페스트 라이쉬-이만열
(경희대 교수겸 아시아 인스티튜트 소장)

삼성과 LG 같은 한국 브랜드는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더욱이 우수한 품질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세계인에게 한국은 여전히 잘 모르는 나라에 불과하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의 한국이라면 이런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한국 기업은 다른 선진국 기업과 세계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특성, 이미지가 제품 경쟁력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정체성,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절실한 과제로 등장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 중 핵심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개념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 생활과 의식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래서 한국인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틀이 되고, 외국인이 한국을 독특한 문화적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 단어 '사무라이'는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세계 누구라도 상관없이 보편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사무라이 경영학, 사무라이 도덕률, 사무라이 전법 등 그 개념을 파생시킨 갖가지 책들이 출판되었다. 사무라이 영화도 수백 개가 넘는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한국에 대해 좀 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대중 가수나 패션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이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개념, 즉 외국인의 지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독특한 매력을 뽐내는 존재감 있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한국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팝 음악이나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등 일부 대중문화에 국한될 뿐이다.

나는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개하는 개념으로 '선비 정신'을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이 단어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선비 정신은 한국 사회와 역사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선비 정신은 도덕적 삶과 학문적 성취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수준 높은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이질적 존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홍익인간으로 대표되는 민본주의 사상을 품고 있으며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루려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외세 개입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동시에 평화적 국제 질서를 적극 지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인뿐 아니라 전 인류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선비 정신에 녹아 있다.

오늘날 지식인은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잃고 폐쇄적인 개별 영역에서 한정된 전문가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런 시대에 선비 정신은 절박하게 필요하다.

교육이 삶의 본질적 차원을 떠나 도구화되어버린 세상에서 선비 정신은 교육의 가치를 재발견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교육을 발굴하고 복원한다면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이 될 것이다. 선비 정신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행합일'은 전통을 재발견하고 이 속에서 교육 체계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약 한국이 선비 정신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여 재창조할 수 있다면 엄청난 파급력이 발휘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단순히 소비품을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이 사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까지 발전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중심적인 역할이다. 더 나아가 세계인을 포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다. 무절제한 소비가 지배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이 제시하는 '선비 정신'은 치유와 회복의 처방이 되기에 충분하다.

선비 정신은 여러 가치를 포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식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다른 나라 엘리트들과 공유할 때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편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선비들이 최고 경지의 지식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

도 시공간을 초월해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선비는 문화와 예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는 존재이다. 이 역시 보편성 있는 특징이다. 선비의 특성을 지닌 엘리트층을 원하는 나라는 지구에 수도 없이 존재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빈약한 지도층이 권력을 쥐고 태연하게 부정부패를 자행하는 것은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나라에 선비 정신이 도입되고 선비 정신의 특징이 알려진다면 엘리트의 결단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선비와 같은 지도자야말로 전 세계 수십억 민초가 갈망해온 이상적인 모델이 아닌가?

선비 정신이라는 전통을 되살리는 작업은 중국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이다. 선비는 중국의 유교 전통, 즉 중국 고대로부터 존재하던 전통과 매우 가깝다. 그런데 원나라 이후 중국의 유교사상은 왜곡의 과정을 거쳤다. 중앙 정부와 황제권 수호를 위해 권위주의를 강화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송나라 시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만약 중국이 한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비 사상에 눈뜨게 된다면 그들은 오래된 과거에 갇고 있는 본래 유교 전통을 재발견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문화 지도를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이 보다 먼저 자기 정체성을 선비 정신으로 표현하고 소개하는 일이 긴급하고도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하버드대 박사가 본 한국의 가능성〉 47~52쪽에서 전재함

악록서원과 중국 문화

주 한 민 (악록서원 원장)

1. 서원 개관

서원은 중국 고대의 독특한 교육 조직 형태로서, 관학 및 사학과 모두 두드러진 차이가 있고, 당나라 말기와 오대 시기 이래 중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담당자이다.

공자는 사학 교육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사학의 주된 교육 형태는 학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학은 중국에서 중요한 교육적 전통이다.

양송 때 들어 강학의 풍습은 더 성행했다. 보통 한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들은 수 백 명씩 모였다. 스승은 돌아가셨는데도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함께 살면서 나머지 일을 토론하였다. 그리하여 악록서원, 백록동서원, 석고서원, 송양서원 등 유명한 서원들이 창건되었다.

서원은 터를 정하는 데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천하의 명산은 모두 승려들이 점령하였다.” 서원은 보통 산수풍경이 뛰어난 곳에 터를 잡았다.

서원은 당나라 말기와 오대 시기에 생겨났고, 장서 기구에서 교육 기구로 전환되었다, 서원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쳐 결국 1901년에 학당으로 체제를 바꿨다.

서원은 티베트 이외에 전국의 모든 성과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모두 7,000개 이상이다.

서원은 중국의 교육, 학술, 문학, 출판, 장서 등 사업의 발전, 민족 풍습의 형성, 국민 사고방식과 습관 및 윤리 관념의 형성 등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서원은 명나라 때부터 조선, 일본, 동남아 각 나라에 전파되었으며, 유가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

서원의 기능

서원의 층차는 매우 다양하다. 높은 차원의 서원은 중국 고대의 고등 교육기구에 속하며 많은 인재를 육성하였다.

서원은 중국 고대 학술 연구와 전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학술과 서원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학문대가들은 서원 발전의 주도자이고, 동시에 서원 학술 활동의 주된 참여자이다.

제사, 장서와 판각은 서원의 중요한 기능이다.

2. 악록서원의 역사

1) 서원의 전신

당나라 말기와 오대 시기 지선 등 승려 2명이 집을 지어서 학교로 만들었다. 이는 서원 형성의 최초의 형태이다.

2) 북송 전기

서원교육의 전성기였고, 전국적으로 서원의 지위가 확립된 시기였다. 개보 9년(976년)에 답주 태수 주동은 정식으로 악록서원을 창건하였다. 당시 악록서원은 강당 5칸과 재사 52칸이 있었다. 함평 2년(999년)에 태수 이윤칙은 서루와 예전을 증축함으로써 강학, 장서와 제사와 기본적인 규제가 이루어졌다. 당시 악록서원의 정원은 60명이었다.

(1) 강학 규제는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윤칙이 서원을 증축할 때 서원에서 강당의 중심적인 위치를 확립하였다. 이것은 역대 서원 구조의 특징이 되었다.

(2) 장서의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윤칙은 서적을 수집하고 함평 4년(1001년)에 국가감본의 전적을 받았다. 이 전적은 악록서원에서 최초로 하사 받은 자료이다. 서적을 보관하는 누각도 건립하였다.

(3) 제사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윤칙은 서원을 증축할 때 “예전(또는 공자당)”을 증설하고, 선사 십철의 소상과 72현인의 초상화를 모셨다.

강학, 장서와 제사 등 3대 기능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뒷날 악록서원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대중상부 8년(1015년)에 악록서원 산장 주식은 학문과 품행이 모두 훌륭하

고, 서원을 탁월하게 경영하여 진동 황제의 부름을 받고 내부 서적과 “악록서원” 편액도 하사 받았다.

천하에 저명한 서원

북송 4대 서원

범성대: 조래서원, 금산서원, 악록서원, 석고서원
여조겸과 왕응린: 숭양서원, 수양서원, 악록서원, 백록동 서원
마단리: 백록동 서원, 숭양서원, 악록서원,
응천부 서원(석고서원)

3) 남송서원

장식이 강의를 주도할 때, 호상학파의 발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 남송 건도 원년(1165년)에 “장식은 많은 사인들이 와서 강의에 참관하도록 하고 그 산천의 아름다운 경치와 서원이 주는 안락함을 사랑하여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는 봉우와 모여 강학하기에 그 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 주희와 장식의 회강: 남송 건도 3년(1167)에 저명한 이학자 주희가 악록서원을 방문하여 장식과 <중용>에 대해서 토론함으로써 서로 다른 학파가 서원에서 회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회강은 서원 학술 연구의 중요한 방식이었다. 즉 서원을 기지로 삼아 서로 다른 학파 간의 교류, 논변을 통해서 자기의 관점을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위 ‘성인’의 ‘도’에 더 가까워지는 데에 그 최종의 목적이 있었다.

야호지회는 순회 2년(1175)에 있었고, 육구연이 백록동 서원에 가서 강학한 것은 순회 8년(1181)이었다. 주희와 장식의 회강보다 각각 8년

과 14년 뒤의 일이었다.

이 학규는 남송 이후 많은 서원의 표본이 되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목을 보충하였다. 남송 시기에 이 학규는 악록서원에서 <주자서원교조>라고 칭하였다. 남송 덕우 원년(1275)에 원나라 군대가 장사성을 공격했을 때 악록서원의 스승과 제자들은 무장하고 성을 지키다가 대부분 희생됨으로써 송대 학자들이 지녀야 할 민족의 기개와 절개를 잘 드러냈다.

남송 4대 서원

악록서원: 장식이 강의를 주도하여 호상학파의 기지가 되었다.

백록동서원: 주희가 복원해서 강의를 주도하여 주자리학의 본령이 되었다.

이택서원: 여조검이 창건하여 무학의 기지가 되었다.

상산서원: 육구연이 강의를 주도하여 상산심학의 기지가 되었다.

4) 원대서원

서원을 복원하고 운영 방침을 종합적으로 확립하였다. 지원 23년(1236)에 학정 유필대가 서원을 중건하였고 연우 원년(1314)에 중수하면서 “앞에는 예전, 측면에 네 개의 서재, 좌측에 제현사, 우측에 백천헌, 후면에 강당을 지었다.” 강당 뒤에 존경각과 극고명정을 지어 옛날의 모습을 똑같이 갖추게 되었다.

이학가 오징이 기문을 지어 “인재를 양성하고 도를 전하여 백성을 가지런히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송대 이래 서원이 이룩한 전통이며 또한 서원의 운영 방침이었다.

지원 28년(1368) 전쟁으로 서원이 훼손되었다.

5) 명대 서원

건축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고 제사 기능도 강화되었다. 명 선덕 7년(1432)에 복원이 시작되어 성화 5년과 홍치 7년~9년 기간에 몇 차례의 중수를 거쳐 대체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송도사를 창건하고 ‘자양유적’을 조성하며 서원의 운영도 다시 시작하도록 하였다.

정덕 2년(1507)에 오세충이 서원의 방위를 고쳐서 대규모의 확충 작업을 하면서 악록서원의 기본 구도를 확립하였다. 명 선덕 시기 이래 몇 차례의 복원과 중축을 거쳐서 악록서원의 주 건물들이 처음으로 중축선에 집중되었고 주축선도 앞쪽에 상강 서안까지, 뒤쪽에 악록산 꼭대기까지 연장되었으며 정, 대, 폐, 방이 조성되었다. 서원의 강학, 장서, 제사의 삼대 기능은 전면적인 회복과 반전을 이룩하여 현존 건축의 기본적 구도의 형성을 위해 기초를 닦아주었다.

6) 청대 서원

교육 기능의 강화와 학술의 지속적인 발전 강희 25년(1686)에 순무 정사공이 서원을 중건하였으며 학생이 날로 많아졌다. 다음 해 봄에 강희제가 ‘학달성천’이라는 편액과 유가 경전 등을 하사하였다.

옹건 11년(1733)에 조서를 반포하고 악록서원은 성에 속한 서원으로 관학화되어 탕금 천냥이 하사되었다. 그 후 호남 문수 등 지방관도 여러 차례 서원 재정을 지원해 주었다.

건륭 8년(1742) “도남정맥”이라는 어서 친필 편액을 하사함으로써 악록서원이 주희와 장식의 이학을 계승한 공을 포장해 주었다

청 정부의 서원 정책은 “별도의 서원 창설 금지”에서 서원의 발전을 장려, 심지어 직접적인

서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서원의 발전 방향을 거의 전적으로 장악하였다.

서원의 관학화는 서원 발전의 내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심지어 서원이 관학처럼 단지 관리가 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하였다. 서원과 관학의 차이는 갈수록 적어지고 심지어 서원 존재의 정당성도 상실되었다.

악록서원은 관의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덕행인과 학문을 두루 갖춘 산장의 주도하에 오래 전에 형성된 뛰어난 학풍을 충분히 발휘하였고, 청나라 중후기에는 관리와 인재 양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청나라 중후기에 서원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것이다. 서원 대문 주련에 걸쳐 있는 “초나라에 인재가 많았지만 이곳에서 가장 흥성하였다”라는 문구는 악록서원과 명실상부한 문구였다. 청대에 회자될 만한 인재로는 철학대사 왕부지, 양강충독, 도수, 계몽사상가 위원, 군사가 좌종당, 학자정치가 중국번, 외교가 광송도, 유신운동의 지도자 당재상, 심근 및 교육가 양창제 등이 있다.

7) 서원 제도의 상실과 학당으로의 변모

광서 23년(1897) 시무학당이 창건되었고 유신 운동의 지도자인 양계초가 중국어 총 교습을 담당하였다. 1898년에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1902년에 호남대학당으로 개편되고 다음에 악록서원에 편입되어 호남고등학당으로 개편되었다. 1922년 양계초가 초청되어 다시 왔다.

신해혁명 이후 ‘학당’이 ‘학교’로 바뀌고, 호남대학교 설립이 계획되었다. 그 기간에 호남고등사범학교와 호남공립공업전문학교에 편입되었다가 1926년에 호남대학이 정식 설립되었다.

◎ 채원배 : 대학은 고도의 심원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다. 고도의 심원한 학문은 대학이 존재하는 합법적 근거가 된다.

◎ 송명리학은 고도의 심원한 학문인가? 물론 그렇다. 송명리학은 세계의 본체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 대학을 영어로 하면 ‘University’ 이는 학생의 자치 조직이며 자치는 대학의 주요 조건이다.

◎ (그러나) 서원을 이해하는 데 서양의 개념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

서원과 대학의 전승 관계의 관건이 되는 두 가지 요소

1. 서원이 고등교육 차원의 기관인지는 하나의 주요한 전제 조건이다.
2. 서원을 기초로 하여 건립된 대학과 서원이 정신적으로 계승 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주요한 점이다.

3. 악록서원과 중국교육사

1. 악록서원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서원이다. 악록서원은 가장 이른 시기에 창립되어 당, 5대, 송명원청을 거쳐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된 서원이다.

2. 가장 완비된 규제와 최대의 규모를 가진 서원이다. 송초에 강학, 장서, 제사의 기본 규제가 형성되고, 끊임없는 발전 과정을 거쳐 규모 체계가 점차 풍부해지고 완비되었다.

3. 유명한 스승이 가장 많은 서원이다. 대학의 지위는 강학을 담당하는 유명한 스승에 의해 규정된다. 서원에서 강학했던 스승 중 유명한 스승이 가장 많았고 송대 4대 학파의 종지가 되

5. 오늘에 이르기까지 악록서원은 고대 서원
으로부터 현대 대학의 전형을 이루었다.

志于成人(참된 사람이 되는 데 뜻을 두고)

악록서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역할은 천 년의 훌륭한 교육전통을 부흥시키는 데 있다. 지난 세기 말부터 악록서원은 국학의 인재 배양과 학술 연구의 기능을 회복해오고 있다. 현재 악록서원에는 역사학 박사후 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중국사 1급 학과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 수여권 그리고 철학 분야에서서도 중국철학 석사, 박사학위 수여권을 획득하였고, 매년 국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맞은 이 시기에 악
록서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중요한 구학 교육과
연구의 터전이 되었고, 중화 문화와 교육의 현
대 중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21세기북스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고영진 교수 하서 김인후,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 강연

2013년도 본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가 12월 1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박래호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오인균 전 이사장은 회원들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 덕분에 하서 500주년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난 6년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정환담 새 이사장을 중심으로 산양회 발전에 힘써 달라고 이임인사를 하였다.

이어서 정환담 신임 이사장이 취임인사를 하였다. “옛 어른들의 큰 뜻을 받들어 나가겠다. 조광조의 지치주의를 이어받은 하서 선생을 재조명하고 실천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민주유학을 실현해보겠다. 시 들어가는 민본 유학, 민생 유학 운동을 펴겠다.”고 품은 뜻을 밝혔다.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는 “두 이사장님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빈다. 9개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10여 차례 워크숍이 있었는데, 필암서원과 월봉서원의 강학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했다.

이날 총회에는 94세의 장효봉선생, 이영복 성균관 고문, 박진용 유도회 본부회장, 장원석 광주향교 전교, 김재경 보성향교 전교, 고우석 창평향교 전교, 배석오 무안향교 전교, 공영철 유림, 이종일 전 광주 남구 문화원장, 김영철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어서 회순에 따라 2013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김승규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13년 사업 결산보고를 듣고,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하서 김인후,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연제로 학술 강연을 하였다.

고영진 교수는 “이 지역은 임란 때 순절자가 많았다. 안방준이 순절자 현장 사업을 많이 했다. 義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타 지역에 비해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해서 학문의 주류가 호서 지역으로 넘어갔다. 17세기 이 고장의 학문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구 인력이 영남의 5분의 1도 안된다.”고 말을 꺼냈다.

90년대에 하서 선생에 관심을 가진 이후, 지금은 사상이 아니라 사상과 삶이 일치된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서 선생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 분이다.

김인후가 소학, 효경에 이어 대학을 강조한 것은 기묘사림의 학문적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왕의 학문인 聖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기 위함이었다.

김인후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주자 성리학에 충실하였다. 理의 우위성을 인정한 그는 이 理를 일상생활과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마땅한 법도, 즉 인륜 도덕의 理로 보고 이를 實理 또는 至理라고 표현했다.

김인후는 “一身의 주제가 되는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으로 하여금 능히 주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敬이다.” 하면서 敬을 수양론의 중심 개념

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호남 사상계가 정통 주자 성리학과 가까운 송순 계열과 주자학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서경덕 계열로 재편될 때 하서는 송순 계열에 속하였으며, 그 속에서도 이항보다는 이이의 견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호남 성리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이이 학파의 학설이 정립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고영진 교수는 '김인후의 문인과 호남 학맥'에서 김인후는 이항 계열을 제외한 김굉필, 송흠, 박상, 김안국 최산두 계열과 모두 맥이 닿아 있다. 김인후의 문인들 가운데 도학에 가장 뛰어났던 호암 변성온이 이항 기대승 박순 성혼과 교유하면서 활동했음을 특히 강조했다.

그의 문인들의 특징은 김인후뿐만 아니라 이항 이항 등 다른 스승에게도 수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문인들 대부분이 이이, 성혼 계통, 특히 이이 학파와 맥이 닿고 있다고 끝맺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보 22집 강연 원고 참고하기 바람)

‘양광위노론에 나타난 하서 김인후의 역사의식과 인생관’ 토론회

문화재청 주최, 대동문화재단 주관
2013 서원활성화 프로그램 (호남권)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대동문화재단이 주관한 2013서원 활성화 프로그램(호남권)으로 진행된 토론회가 지난 12월 13일 14시에 광주향교 문화재에서 ‘양광위노론에 나타난 하서 김인후의 역사 의식과 인생관’이란 주제로 열렸다.

김재수 광주교대 명예교수가 발제문을 발표하였고,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 사회로 동양문화학회 김장수 부회장, 고영진 광주대 교수, 정환담 광주향교 유교대학장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는 ‘하서는 왜 양광위노론을 썼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箕子가 紂에게 거짓미친 척 종노릇하며 목숨을 보존한 것이 인종사 후 김인후의 행위와 비슷하므로 양광위노론은 단순히 기자의 삶을 논평한 것이 아니라 김인후의 삶과 일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서의 ‘양광위노론’에서 “사람의 일이란 변천이 있고, 기회란 무상한 것인즉 난세가 변해서 치세가 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경우라면 천하의 책임을 맡을 자가 누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전하는 것이요, 그 몸을 보전하는 것은 바로 그 道와 義를 보전하는 동시에 끝내는 국가를 보전하고자 한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김인후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서가 명종의 부름을 끝까지 받들지 않고 절의를 지키면서 저항한 것은 이런 역사관에 입각해서 요순같은 왕도정치를 한번 펴보겠다는 희망을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위대한 원리가 담겨 있는 洪範을 하늘이 禹王에게 내려주었다고 하는데, 이를 기자가 周武王에게 전수했다고 한다. 발제자는 洪범 稽疑에 예기 禮運篇에 들어 있는 大同社會란 개념이 나오는데, 하서가 洪範 摯作掛之圖를 지은 것으로 보아 하서가 꿈꾸었던 이상사회는 요순 시대와 같은 대동사회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고영진 교수는 '양광위노론'이 김인후의 삶과 일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관과 역사관을 담고있는 귀중한 논설이라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김인후가 꿈꾸었던 이상 사회가 요순 시대와 같은 대동 사회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16세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대동사회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書經, 禮記, 周易에 관심을 갖고 주석을 달았지만 막상 <서경>의 「홍범 편계역」, <주역>의 「同人卦」, <예기> 「예운편」 속의 대동사회 관련 내용을 직접 언급한 경우는 권근, 이이 정도이고, 위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몇 개 있으나 그것은 대동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동사회와 일치 함치한다는 원론적인 의미를 강조할 뿐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논리적 비약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질문도 활발하였다.

하서선생을 기리는 필암서원 춘향제 봉행

초헌관에 한국학술원 이성무 부원장

하서 김인후 선생과 고암 양자징을 기리는 춘향제가 지난 3월 17일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호 필암서원장, 정환담 산양회 이사장,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김양수 장성군수, 송준빈 남간사도유사, 정운림 전북 유림 원로, 강대욱 광주향교 유도회장, 반강진 장성향교 유도회장, 박재구 광주북구문화원 훈장, 이

동우 충남 공주향교 훈장, 안종덕 보성향교 유도회장 등 200여명의 이 고장 유림과 장성군민, 울산 김씨 종친이 참석하였다.

춘향제는 제물을 바치는 봉진례, 비단을 바치는 전폐례,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안동교 조선대 교수,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 등이 제관으로 참여하였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학술원 부원장이신 이성무 초헌관은 제향을 마친 뒤 서원내 청절당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강론했다. 이성무 부원장은 "도학과 절의 문장을 두루 갖춘 선생의 공명정대함과 낮고 쉬운 것부터 배워 깊고 어려운 것을 깨닫는 하학상달(下學上達)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학문의 자세"라고 말했다.

2014년 상반기 이사회 5월 23일 열다

6월 25일 집성관에서

박석무 이사장이

박순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강연하기로

본회 이사들의 직무 분담과

집행 부서 조직개편도 논의함

본회 이사회가 5월 23일(수) 18시 예원식당에서 정환담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래호 총무의 경과보고를 듣고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하계 강연은 6월 25일(수)에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청백리 사암 박순의 생애

와 사상>이라는 연제로 강연하기로 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하서에만 한정하지 않고 윤원형과 이량을 탄핵 척결하여 하서가 목숨을 걸고 소청한 기묘명현의 신원을 완결시킨 사암 박순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호남사림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이고자 했다.

이어서 본 『산양회보』 제23호 편집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사들의 직무 분담과 집행 부서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다. 총무 선임 문제는 정환담 이사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총무의 직무 분담 문제, 광주 총무간사를 두는 문제도 논의하였다. 당분간 이충원 이사가 회원 주소록과 발송록을 정비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단법인이 되기 전에는 회장, 부회장, 지역 부회장, 고문, 책임연구원, 간사 등 집행부서가 있었는데, 법인 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집행부서 기능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 집행부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특히 책임연구원을 보강하여 하서 사상과 문학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후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장, 김재수, 박래호, 김장수 이사가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본회 회원 활동이 미약한 것을 반성하고, 회원들의 활동을 꾀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함과 아울러 춘추향제 전야에 강론을 했던 필암서원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필암서원에서 자면서 인문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집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필암서원 고문헌 디지털로

장성군, 필암서원 - 전남대학교 도서관 협약

고문헌 1,334종 3,760책

조선시대 서원 연구 기대

조선시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학 등 다양하고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필암서원 고문헌이 디지털 작업을 거쳐 일반인은 물론 학문 연구자에게 공개된다.

장성군, 필암서원과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필암서원의 고문헌 1,334종 3,760책 전산 디지털화 및 이용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2014년 3월 10일 체결하였다.

하서 김인후 선생 후손들은 하서학술재단과 양영재단을 설립 2008년 4월 4일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개관에 따라 7억 4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서를 장성군에 기증, 이중 일부 서적과 유물을 전시하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해왔던 것을 이번에 전산화하게 되었다.

필암서원 고문헌은 하서집을 비롯한 문집류, 유교 경전, 서원 관련 서적, 족보 등 다양하고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고문헌에 대한 조사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책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수장고에 보관만 되어 있었다.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호남 지역의 서원, 향교, 사찰, 문중 등에 소장된 각종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화하여 일반 사람은 물론 순수 학문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필암서원의 문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암, 돈암, 무성서원 연계한 활성화 프로그램 활발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고, 서원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활성화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된 전국 9개 서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동문화재단은 충청 전라권의 돈암서원, 무성서원, 필암서원에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서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했다. 논산의 돈암서원은 호서지방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사계 김장생, 사계의 아들 김집, 노론의 거두 송준길과 송시열 등을 배향한 서원으로 ‘예학(禮學)’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청소년 예절 학교, 선비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읍의 무성서원은 최치원의 생사당(생존해 있는 사람의 학덕과 덕행을 기려 세운 사당)인 태산사로 창건되었던 서원으로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목, 김관이 추가 배향된 서원이다. ‘의리(義理)’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청소년 예절 학교, 선비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성의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의 도학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으로 고암 양자장을 추배했다. ‘청렴(淸廉)’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원 스테이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동재 서재에 나뉘어 잠을 청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비들처럼 복장을 단정히 하고 소화를 배웠다. 할 쏘기도 해보고, 차 한 잔으로 여유로운 풍류 정

신도 배웠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서원 활성화 프로그램이 충청, 전라남북도의 서원을 연계해 활기차게 지난해 연말까지 이어졌다.

장성 ‘청렴문화’ 이젠 아시아로 전파 중기업 CEO 10명 방문 청렴교육 받아 유적지 탐방 등 체험 관광 프로그램 인기

장성군 청렴 문화 체험 교육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까지 물꼬를 텄다. 장성군 청렴문화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장메이룽 청두 삼괴투자 주식유한회사 회장 등 중국기업 CEO 10명이 장성을 방문, 군의 청렴 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일부터 열린 ‘중국 기업 경영자 매니지먼트 투어’ 공식 일정을 마치고 우수 지자체 방문을 원하는 CEO들을 별도로 구성해 이뤄졌다. 장성군의 청렴 문화 체험 교육에 아시아 유교 문화권 나라의 첫 방문이라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

중국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부터 관리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등 청렴 문화 확산에 전념하고 있어 중국 기업인들의 장성 청렴 문화 체험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주석은 최근 사법 기관을 총괄하는 중국 정법회의에 참석해 ‘무리에 해를 끼치는 말(馬)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패척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장성을 찾은 중국 기업인들은 청백리 자연밥상을 체험하고 청렴 유적지인 아곡 박수량 선생

의 백비를 탐방한 후 청림문화센터로 이동해 청백리 전시실과 필암서원 등을 관람했다. 장성군 청림문화센터 관계자는 “청림 교육이 드디어 아시아까지 물꼬를 트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청림 교육을 국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투명성 강화, 청림 문화 확산

장성군 - 부패학회 MOU

장성군 청림문화센터는 8일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부패학회(회장 윤은기)와 한국사회의 투명성 강화 및 청림 문화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과 (사)한국부패학회는 정책 포럼 및 토론회의 지원, 반부패 청렴도 향상 및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청림 문화 체험 교육 확산, 반부패 국제 교류 추진 시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다음달 ‘청림 · 반부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청림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반부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청림 문화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부패학회는 지난 1995년에 설립된 단체로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학술 단체다.

순창군, 훈몽재 주변 대나무 홍설매 심다

하서 학술재단에서 기증 받아 조성

순창군이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훈몽재 주변에 대나무와 설중매를 심었다. 순창군은 4월 6일 쌍치면에 있는 훈몽재 주변에 대나무 400주와 설중매 30주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는 하서 학술재단(김상화 이사장)에서 후원하여 조성한 것이다. 이로써 선비로서 지조와 절의를 나타내는 송, 죽, 매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었다.

훈몽재는 순창군이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지난 2009년 복원했으며 강학당인 훈몽재, 교육관인 자연당과 양정관, 정자인 삼연정이 있다. 또 지난해에 수강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집합 교육 시설과 취사장을 갖춘 양생당도 건립하였다.

현재 유학생과 어린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과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전국의 수학생들에게 강회를 열고 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내 학술대회 개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2주년을 맞아 성공적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기념하고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이룩하기 위한 국내학술대회를 4월 18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국내 학술대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작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해당 서원의 계승과 활용에 관련한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으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다른 문화유산에서 운영 중인 활용 실태에 대해서 검토하여, 우리 서원들의 논의 방향과 비교 검토하며 향후 문화유산 신청에 참고하며, 서원과 관련된 전문가 및 실무자를 통하여 해당 서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필암서원에서는 도유사 김인수, 별유사 김진산, 문화관광과 강대익 계장이 참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9회를 개최하는 등 등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2014년 1월중 세계문화유산 사무국에 신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중국전국 청년연합회 대표단

필암서원 봉심

중국청년대표단 단장 왕숙빈(王淑濱)외 150명 한국 방문단 일행이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필암서원과 백양사를 방문(1박2일)하였다.

5월 11일 중국 청년 방한 대표단 일행은 필암서원 학술회가 베푸는 초청 만찬에 참석 양국가 간의 문화, 인적, 교육 등 적극적 교류 협력에 뜻을 같이하였으며 12일에 필암서원을 내방 3개조를 편성 순차적으로 우동사에서 하서 김인후선생의 신위에 봉심하고 원진각 유물 전시관 집성관 필암서원 전경을 탐방하였다.

필암서원에서는 중국어 전문 문화해설사 3인

을 배치 청년단에게 하서 김인후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설명함으로써 하서 선생의 도학 정신, 충성심, 강학 정신을 알리었다.

최상옥 남화토건 회장

‘국민모범인상’ 수상

본회 회원이신 최상옥 남화토건(주) 회장과 최상준 남화토건(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제12회 국민모범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21세기여성발전위원회 (회장 이화성 호남대 설립자)는 최근 올해의 국민모범인상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계에서 추천된 후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 회장 형제를 공동 수상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형제는 나눔 경영 실천과 모범적인 노사 문화 정착에 숭선수범해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사회 봉사, 구제,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형제 경영’의 이정표를 세웠다.

하서 문인 李至男 후손 필암서원

우동사 알묘

지난 4월 12일 연안(延安) 이씨 숙부인과 종중(宗中) 이용준(李庸俊) 회장과 河西 門人이었던 李至男(永膺公)의 후손인 이찬희 씨 이종억씨등 30여명이 서원에 도착, 우동사를 알묘한 후 하서 선생의 묘소까지 성문하고 귀경하였다.

본회 박래호 총무 동정

지난 5월 14일 대성학당(大成學堂) 문경규 이사장,昌平향교 유안중 전교 초청으로 창평 향교 명륜당에서 ‘호남 사림 정신과 선현들의 일화’라는 주제로 특강하였다.

5월 29일 성균관 전의에 위촉되었는가 하면 서정기(徐正淇) 성균관장 초청으로 명륜당에서 ‘필암서원과 백록동 학규, 그리고 선현들의 일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천국을 거닐다, 소쇄원 김인후와 유토피아

한국인의 마음으로 사서삼경을 번역해 냈던 유학자 이기동이 전남 담양으로 발길을 옮겼다. 소쇄원, 이곳은 조선조 유학자 하서 김인후가 修己하며 治人하는 유교적 이상국가 건설의 염원이 좌절된 뒤, 낙향하여 담양 땅에 일구어 놓은 작은 천국이다. 필자는 이 자그마한 동산에서 정암 조광조로부터 시작하여 하서 김인후, 송강 정철로 이어지는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이 되짚는다. 유학자 이기동의 담박한 사설이 소쇄원 곳곳의 모습과 더불어, 가사 문학관, 식연정, 면안정, 환벽당, 송강정까지 이어진, 그리움의 사계를 담은 속박한 사진들과 함께한다.

김인후가 으뜸인 정경으로 골라 뽑아 그에 붙인 지「소쇄원 48영」도 온전히 우리말로 옮겨져 있다. 어떠한 삶의 위로도 가닿지 않을, 잠시 지옥인 이 세상, 우리는 과연 천국에 들어설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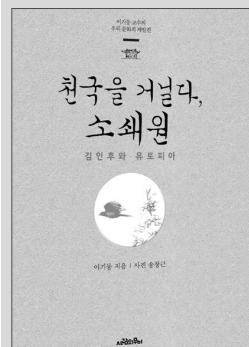
유학의 목적은 자기를 완성하고 타인을 완성

시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뜻있는 유학자가 꿈꾸는 최고의 이상이였다.

이러한 유학자의 염원이 정암 조광조에 의해 불이 붙었다가 실패로 끝난다. 이를 본 하서 김인후는 너무나 안타까웠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김인후가 제자로서 仁宗을 만난 것은 천운이었다. 그가 보기에, 인종은 聖君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서는 정암이 꾸었던 천국 건설의 꿈을 다시 불태웠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종은 갑자기 세상을 뜬다. 그리고 을사사화의 피바람은 휘몰아쳤다. 이 후 김인후는 병을 핑계로 관직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 뒤로는 벼슬길에 일체 나아가지 않고, 자기 수양과 후학 양성에만 몰두했다. 그 처절한 자기 수양 끝에 건설된 곳이 바로 소쇄원이다. 그리고 송강 정철은 그가 길러낸 후학 중의 한 사람이다. 팔자는 송강의 「사미인곡」을 환기하며, 이 노래가 벼슬에 연연하는 소외된 정치가의 것이라는 평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책소개



천국을 거닐다, 소쇄원

김인후와 유토피아

이기동 지음
사람의무늬

入會를 환영합니다

入會者

光州市 光山區 梁太鎬 30,000

誠金

光州市 南區 金蓉叔 100,000

삼양홀딩 2,000,000 (1/29)

2014년 춘향 추모 화환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달수

울산김씨 문정공도유가 김인수

울산김씨 장성 공직자회

광주향교 전교 장원석

장성향교 전교 이상용

성군관유도회 광주본부장 강대욱

울곡사상연구원이사장 김동현

울산김씨 밀등회 회원 일동

광주향교 모성회장 김동현

그레이스 화원 김동원 사장

2014年 3.17(陰曆 2.17)

필암서원 춘향제 헌성금

금 액	성 명	주 소
5,000,000	김 상 하	재단법인 하사학술재단 이사장
500,000	산 앙 회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500,000	김 인 수	비영리법인 필암서원 학술회 대표
300,000	양씨종중	광주시 동구 지산로63
200,000	오 성 근	전주 덕진구오송로47,24동 404
100,000	송 광 용	장성군자부 농협장
100,000	김 관 중	울산김씨 장파 도유사
100,000	김 상 현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김 재 승	전남대 전 교수(운영위원)
100,000	김 창 수	울산김씨 계파 도유사
100,000	송 준 빈	남강사 도유사
100,000	김 종 환	문정친목회 회장
100,000	영귀서원	곡성군
100,000	정 환 담	산양회 이사장
100,000	양 연 옥	장성 교육지원청 교육장
50,000	반 강 진	장성향교 유도회장
50,000	정 종 연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50,000	양 중 호	담양군 수북면 쪽재로길 84
50,000	양 태 호	광주시 광산구 수등로 94-31
60,000	김 상 집	광주시 서구
50,000	공 재 경	장성군 북이면 사산사
50,000	김 랑	광주시 광산구 신기동
50,000	차 장 곤	장성군 축협장
50,000	김 성 수	장성군 장성읍 신천길 54
50,000	김 영 수	장성군 황룡면장
50,000	김 상 준	대종회 상근 부회장
50,000	김 영 길	대종회 조직사업국장
50,000	김 상 백	담양군 담양읍 지참리136-15
50,000	김 재 수	광주시 남구
30,000	공 영 갑	장성군 남면 마산
30,000	김 창 수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동계
30,000	변 일 섭	황룡면 뱃나드리길 16
8,250,000	33명	

— 목 차 —

경범(景范)에게 편지하고서 아울러 박화숙(朴和叔)에게 부치다 하서 김인후	1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생애와 사상 이성무(한국 학술원 부원장)	2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에 대한 정조대왕의 평가 김용숙	12
청백리 사암 박순(淸白吏 思菴 朴淳)의 생애와 사상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시장)	16
선비정신, 한국 흥보의 핵심 개념 임마누엘 페스트 라이쉬(이만열)	25
악록서원과 중국문화 주한민(악록서원 원장)	27
필암서원·산양회 소식	32

— 알 림 —

1. 변경된 새 주소와 전화번호 써 주십시오.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 회원님들께서는 장성 농협(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계좌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강연회 또는 춘추향제에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 계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2705-6395 김재수)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① 성명(한문) ②본관 ③아호(한문) ④생년월일 ⑤주소 ⑥전화번호(주택, 휴대폰) ⑦학력 및 경력, 현직

3. 청·장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4. 12.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종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현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을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의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金東炫 울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 (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에희(강원대 교수) 강연
- 2012년 3월 7일 춘향제, 초현관 최상옥 회장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 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박병호 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강연
-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정환담 학장 : 「하서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강연
- 2013년 3월 22일, 춘향제 올리고 초현관 이낙연 의원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 강연
- 2013년 7월 1일, 집성관에서 ‘동춘당과 우암의 하서 존숭’ 김문준 교수 강연(건양대)
- 2013년 9월 30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이정식(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한중 호남 문화속의 악록서원과 필암서원 교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강론
- 2013년 12월 1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고영진 교수, ‘하서 김인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강연함
- 2014년 3월 17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이성무 한국학술원 부원장,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 강연함